

상징과모래놀이치료, 제16권 제1호
Journ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2025, 4, Vol. 16, No. 1, 125-173.
doi <https://doi.org/10.12964/jsst.25003>

공포와 매혹의 투사로서 괴물의 유형과 상징성
“Types and Symbolism of Monsters as Projections of Fear and Fascination”

김 인 아
Ina Kim

김 수 미
Sumi Kim

The English full text is right after the Korean one.

공포와 매혹의 투사로서 괴물의 유형과 상징성 “Types and Symbolism of Monsters as Projections of Fear and Fascination”

김 인 아*
Ina Kim

김 수 미**
Sumi Kim

<국문요약>

본 연구는 괴물이 인간 심리와 문화에서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연구 대상은 신화, 문학, 영화 등 다양한 맥락에서 나타나는 괴물을 중심으로 괴물의 유형과 상징성을 탐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모성 콤플렉스, 그림자, 통과의례와 같은 분석심리학의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괴물을 해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괴물은 모성 콤플렉스를 통해 인간이 경험하는 의존성과 억압의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며 이러한 갈등을 극복함으로써 내면적 성장을 이루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둘째, 그림자로서 괴물은 인간 내면의 억압된 어두운 측면을 형상화하며 이를 직면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심리적 치유와 성숙에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셋째, 통과의례의 상징으로서 괴물은 인간이 성숙과 변화를 이루기 위해 마주해야 하는 시험과 시련을 상징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괴물이 단순히 공포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성장과 자기 이해를 촉진하는 중요한 상징임을 강조한다.

주요어 : 괴물, 상징성, 모성콤플렉스, 그림자, 통과의례

* 해님과바람심리상담센터센터장, 남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 아동복지학과 재학중 / E-mail: kia0121@naver.com

**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Wee센터 실장, 제주대학교 대학원(박사) 교육학과 수료



Copyright ©2025, Korean Society for Sandplay Therap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symbolic meaning of monsters in human psychology and culture from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Focusing on monsters appearing in various contexts such as mythology, literature, and film, it examined different types of monsters and their symbolisms. The study interpreted monsters using core concepts of analytical psychology, including the mother complex, the shadow, and rites of passag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the mother complex, monsters reveal the psychological conflict between dependence and repression that humans experience, and suggest the possibility of inner growth through overcoming these conflicts. Second, as representations of the shadow, monsters embody the repressed and darker aspects of the human psyche, and the process of facing and integrating these parts is shown to be essential for psychological healing and maturity. Third, as symbols of rites of passage, monsters represent the trials and challenges that must be confronted for maturity and transform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at monsters are not merely objects of fear, but important symbols that support human growth and self-understanding.

Key words : Childhood abuse, adult male, sandplay therapy, shadow, anima, symbol

I. 서론

괴물(怪物, monster)은 라틴어 monere(경고하다)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괴물이 인간 내면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두려움과 공포, 내면의 불안을 직시하도록 돕는 역할을 시사한다(Carroll, 1990; Cohen, 1996). 박물학자들은 비정상적이거나 기괴한 동물들이 다가오는 악의 징조로 해석되었음을 기록했으며 이는 고대 중국에서 이상한 생물이나 천문 현상을 하늘이 보내는 경고로 간주했던 관념과 유사하다(Liu, 2018/2020, 재인용).

인문학자인 Cohen(1996)은 괴물이 사회의 불안과 문제를 투영하며 분류 체계의 붕괴, 금지된 경계의 넘나듦, 인간의 욕망과 공포를 드러내는 존재임을 강조하면서 “괴물은 항상 돌아온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Carroll(1990)은 괴물의 핵심 조건으로 비정상성과 공포의 유발, 규범의 위반 등을 제시하며 괴물이 정상성과 혼돈의 경계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괴물은 고대 신화에서는 키메라와 메두사처럼 인간과 신의 경계를 지키는 존재로 현대에서는 프랑켄슈타인이나 고질라처럼 윤리적 경계와 인간 탐욕의 문제를 조명하며 더욱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최근 환경 문제와 사회적 불안, 복잡해진 가족 관계를 반영하며 환경 괴물이나 부모 괴물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상징적 존재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고대 자연현상과 부모 원형과 같은 상징들이 현대적 맥락으로 재구성된 것으로 인간과 환경, 가족 관계를 성찰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한다. 괴물은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진화하며 인간의 심리와 문화를 비추는 상징적 존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괴물은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 심리와 문화적 상상력이 반영된 상징적 존재로 자리 잡아 왔다. 괴물은 신화, 전설, 문학, 영화 등 다양한 매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두려움과 공포를 자극하면서도 미지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양면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괴물의 상징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은 인간이 내면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갈등, 성장 과정, 사회적 불안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특히, 분석심리학에서 괴물은 무의식의 투사이며, 인간이 직면해야 할 심리적 시련과 변화를 상징한다(Jung, 1964/2009). 괴물은 이러한 원형적 구조 속에서 인간이 내면적으로 겪는 갈등과 성장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존재이며, 단순한 허구적 창조물이 아니라 인간 심리와 문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의미를 형성하는 상징적 존재로 기능한다.

상징(Symbol)은 인간의 내면적 경험을 외부의 형상으로 드러내는 이미지의 형태로 문화와 심리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분석심리학에서 상징은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으로 연결하는 매개체로 작용하며, 개인적·집단적 차원에서 인간의 심리적 구조를 반영한다. 상징은 원형(Archetype)에서 기원한다. 원형은 그 자체로 의식에 직접 드러나지 않으며, 꿈이나 신화, 상상 속 이미지와 같은 구체적인 형태를 통해 표현된다(Jung, 1964/2009;

Neumann, 2004/2010). 이때 형성된 이미지는 개인적·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상징에 투사되며, 우리는 그 상징을 통해 원형 에너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장미경, 2024). 원형은 이러한 상징의 근본 구조로,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 내재한 보편적 심리 패턴을 반영한다(Jung, 1984/2002). 따라서 상징은 보편적 의미와 개인 및 문화적 의미라는 이중적 속성을 가지며 이는 신화, 종교, 문학 등의 상징체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반복은 인간 심리의 근본 구조를 형성하며, 상징을 통해 무의식의 원형적 에너지가 의식적으로 통합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장미경, 2024).

본 연구는 괴물을 형태, 역사, 지역, 문학 및 문화적 요소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속하는 괴물의 종류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등장하는 괴물들은 형태, 능력, 기원, 행동 양식 등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거나 공통된 특징을 지니며, 이러한 특성은 괴물의 상징 연구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괴물의 분류를 통해 그 상징성과 의미를 탐구하고 이를 분석심리학의 핵심 개념들과 연결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화, 문학, 영화, 모래놀이치료 사례 등을 분석하며 괴물이 모성 콤플렉스, 그림자, 통과의례의 상징으로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중점으로 다룰 것이다.

II. 괴물의 유형

본 장에서는 괴물의 다양한 표현 양상을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조명하기 위해 형태, 역사적 시대, 지리적 지역, 문학 및 문화적 맥락이라는 네 가지 기준에 따라 괴물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이 모성 콤플렉스, 그림자, 통과의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괴물은 인간 무의식에 뿌리를 둔 상징적 존재이며 특정한 심리적 갈등이나 원형적 에너지를 드러내는 통로로 기능한다.

1. 형태에 따른 분류

괴물의 형태적 분류는 가장 직관적이며 사람들이 괴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리는 시각적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다. 괴물의 외형은 단순한 시각적 표현을 넘어 무의식의 심리 구조를 반영하는 원형적 이미지로 작용하며, 이는 분석심리학의 핵심 개념들과 깊이 연결된다(Jung, 1964/2009).

<표 1> 형태에 따른 분류

유형	대표 괴물	특성
1. 동물형	고르곤, 키메라, 해클링, 그리핀, 히드라, 케르베로스, 크라켄, 스킬라 등	동물의 모습을 기반. 과장된 신체 구조와 초자연적 능력.
2. 인간형	뱀파이어, 좀비, 늑대인간, 강시 등	인간의 형상. 기형적이거나 초인적인 요소.
3. 혼합형 (동물+인간)	에키드나, 스팅크스, 미노타우로스, 사이렌, 인어, 메두사등	인간과 동물의 혼합, 기형적, 이질적
4. 식물형	그루트, 엔트 등	식물 기반. 독성
5. 자연재해형	태풍, 해일, 황사, 토네이도, 천둥, 벼락, 폭풍, 화산 등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힘
6. 초 자연형	유령, 악마, 요괴, 마귀 등	물리적 형태보다는 추상적이거나 초자연적 존재.
7. 비인격형	히틀러, 스탈린, 프랑켄슈타인, 살인마 등	인간이지만 감정과 도덕성이 결여된 존재.



[그림 1] 히드라 (AI)



[그림 2] 엔트 (AI)



[그림 3] 고르곤 (AI)

동물형 괴물은 본능적 힘, 자연의 위협, 파괴성과 같은 원초적 속성을 상징한다. 예를 들어 히드라는 머리를 자를수록 늘어나는 특징을 통해, 억압된 감정이 더욱 증폭되는 모성 콤플렉스의 통제적 속성을 나타낸다. 이는 보호와 양육을 상징하는 어머니가 억압적이고 위협적인 존재로 전환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보여준다(Neumann, 1974/2009). 또한 고르곤은 공포와 냉혹함을 지닌 파괴적 모성의 원형적 이미지로 해석되며 소피아와 같은 지혜의 모성과 대비된다(Neumann, 1974/2009).

식물형 괴물인 엔트는 생명력과 동시에 고정됨과 정체성을 나타내며 자연과의 연결 속에서 변화와 성장을 유예하거나 회피하려는 심리를 반영한다. 이는 보호적인 모성 이미지나 지나치게 고착될 때 심리적 정체나 미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징한다.

자연재해형 괴물은 대지와 바다의 파괴적 모성을 극단적으로 형상화한 존재들이다. 태풍과 해일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위력과 연결되며, 이는 무의식의 어머니 이미지가 억압적이고 두려운 힘으로 경험될 때 나타나는 심상이다(Jung, 1964/2009; von Franz, 1974/2021).

인간형 괴물은 인간의 그림자, 즉 억압된 본능과 감정, 수치심, 분노 등 내면의 부정적 요소가 외부 존재로 형상화된 것이다. 뱀파이어는 억압된 욕망과 집착, 생명 에너지에 대한 갈망을 상징하며 무의식에 잠재된 어두운 자아의 투사된 이미지이다. 이 경우 괴물은 단지 그림자의 투사일 뿐 아니라 억압된 자아를 수용하고 통합하려는 상징으로도 해석된다(Jung, 1950/2016; 이부영, 2021a).

혼합형 괴물은 이질적인 요소의 결합으로 구성되며 심리적 모순과 통합되지 못한 자아 상태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스펡크스는 수수께끼를 통해 주인공에게 통과 의례적 시련을 부여하며 자아 성장과 통합을 위한 상징적 관문으로 기능한다. 헤라클레스가 히드라를 처치하고 오이디푸스가 스펡크스를 통과하는 이야기 속 시련은 모두 내면의 자아 성장 여정을 상징한다(Campbell, 1949/2018).

초 자연형 괴물(유령, 악마 등)은 억압된 감정, 죄책감, 부정적 기억의 의인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그림자의 투사이자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화되는 치유와 성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유령은 억압된 감정과 기억이 외부화된 상징으로 이를 직면하고 통합하는 과정은 심리적 치유의 핵심적 단계임을 보여준다(von Franz, 1974/2021).

비인격형 괴물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붕괴하였을 때 나타나는 그림자의 사회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들은 인간 내면의 그림자가 외부 현실로 구체화된 존재로 억압된 공격성과 파괴 충동의 집단적 투사라 할 수 있다(Cohen, 1996).

이처럼 괴물은 인간 내면의 심리 구조를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 세계와의 긴장 속에서 자기 이해와 성숙을 향한 여정을 촉진하는 상징적 존재로 기능한다(Jung, 1964/2009; Estes, 1992/2015). 따라서 괴물의 형태는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모성 콤플렉스의 양면성(보호 ↔ 억압), 그림자의 투사와 통합, 통과 의례적 시련이라는 분석심리학 개념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2. 역사적 시대에 따른 분류

괴물은 시대와 함께 진화하며 각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 독특한 의미를 부여받아 왔다. 아래 표는 괴물을 역사적 시대별로 분류하고 각 시대의 특성 및 배경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표 2> 역사적 시대에 따른 분류

유형	대표 괴물	특성 및 배경
1. 고대 신화 및 전설	고르곤, 키메라, 그리핀, 히드라, 스펡크스, 에키드나, 스킨라, 크라켄, 미노타우로스 등	자연현상, 인간의 두려움, 신에 대한 경외심을 상징 (de Vries & de Vries, 1974/2024).
2. 중세	드래곤, 유니콘, 라비아탄 등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반한 신앙과 도덕적 질서 강조, 죄와 타락, 악마적 속성의 형상화 (Neumann, 1974/2009).
3. 르네상스	바실리스크, 그리핀, 루시퍼, 고르곤, 악마 등	환상과 상상이 확장되며 예술과 문학에서 괴물이 창조성과 상상력의 상징으로 활용 (Neumann, 1974/2009).
4. 근대 (18~19세기)	프랑켄슈타인, 드라큘라, 늑대인간 등	과학과 산업화로 인한 불안, 윤리적 경계와 과학적 오만에 대한 경고를 상징 (Shelley, 1818/2020).
5. 현대 (20세기 이후)	터미네이터, 에일리언, 더 씽, 좀비, 고질라, 로봇,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 전쟁, 환경 문제와 심리적 불안을 반영하며 괴물의 유형이 다양화됨.

괴물은 시대적 맥락에 따라 인간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여정의 상징으로 기능하며 모성 콤플렉스, 그림자, 통과 의례와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된다(Neumann, 1974/2009).

고대의 괴물은 자연현상과 신성의 경계를 나타내며 혼돈과 공포를 상징했다. 예를 들어 미노타우로스는 인간 내면의 그림자를 반영하며, 에키드나는 모성 콤플렉스의 상징으로 해석된다(de Vries & de Vries, 1974/2024). 에키드나는 여러 괴물의 어머니로서 생명을 창조하면서도 파괴적인 후손을 배출하는 이중성을 지닌다. 이는 모성이 가진 양가적 속성 즉 보호와 양육의 긍정적 측면뿐 아니라 억압적이고 파괴적인 측면을 나타낸다(Jung, 1985/2021).

중세의 괴물은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인간의 죄와 타락을 형상화했다(Neumann, 1974/2009). 드래곤은 보물을 지키는 존재로 창조주(모성적 존재)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적 자아를 찾기 위한 도전을 상징하며 기사가 드래곤과 맞서 싸우는 여정은 내적 성숙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통과 의례를 반영한다(Neumann, 1974/2009).

르네상스 시기의 괴물은 상상력과 창조성을 통해 새롭게 재해석되었다. 바실리스크는 탐욕과 권력 남용의 위험을 경고하는 상징으로 그리핀은 고귀함과 보호의 이미지를 통해 모성 콤플렉스의 억압적 측면을 드러낸다.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로서 인간 내면의 어두운 욕망과 갈등을 상징하며 그림자로서의 괴물이 심리적 투쟁을 드러내는 사례이다.

근대의 《프랑켄슈타인》(1818)은 과학기술과 윤리적 경계를 넘어선 탐구의 위험을 상징하며,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통해 모성 콤플렉스와 그림자를 표현한다(Shelley, 1818/2020).

이는 인간이 억압한 본능과 충동을 투사한 것이며 그림자를 직면하지 못할 때 초래되는 심리적 파괴를 보여준다.

현대의 괴물은 과학기술 발전, 사회적 불안, 환경 문제 등을 반영하며 다양화되었다. 예를 들어 좀비는 통제되지 않는 집단적 무의식을 상징하며 현대인의 그림자를 투영한 대표적인 존재로 해석된다(이준호, 2018). 한편 《에일리언》(1979) 퀸은 생명을 창조하면서도 파괴하는 양면적 모성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존재로 알을 낳아 보호하며 침입자를 잔인하게 제거하는 모습은 보호적이면서도 억압적이고 파괴적인 모성의 부정적 측면을 상징한다 (Neumann, 2009/1974; 재인용, 장영란, 2015; 원형준, 2017).

괴물은 단지 억압된 그림자의 외부 투사로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이 내면의 어두운 자아를 직면하고 통합해 나가는 과정을 상징하는 심리적 지표이며, 모성 콤플렉스와 통과의례의 역동성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3. 지리적 지역에 따른 분류

각 지역의 괴물은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종교적 신념, 사회적 맥락에 따라 고유한 특징을 지닌다. 괴물의 지리적 분포는 단순한 지역적 차원을 넘어, 해당 지역의 집단적 무의식과 원형의 구체화를 보여준다(Jung, 1964/2009).

<표 3> 지리적 지역에 따른 분류

유형	대표 괴물	특성 및 배경
1. 유럽	키메라, 그리폰, 드래곤, 프랑켄슈타인, 하피, 드라큘라, 늑대인간, 좀비, 로렐라이 등	기독교적 세계관과 신화에서 기원, 죄와 타락, 신에 대한 도전과 처벌을 상징(Neumann, 1974/2009).
2. 아시아	구미호, 용, 해태, 오니, 강시, 아마타노오로치 등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동양 철학과 결합 (de Vries & de Vries, 1974/2024).
3. 아메리카	웬디고, 치프카브라, 요로나, 빅 풋 등	원주민 신앙, 자연과의 관계, 식민주의 역사적 배경에서 탄생. 현대적 과학·환경 문제 반영(Liu, 2018/2020).
4. 북유럽	트롤, 요툰, 드라우그, 크라켄 등	바이킹 신화와 전설에 뿌리를 둔, 혹독한 자연 환경과 생존의 어려움을 상징(Neumann,1974/2009).
5. 아프리카	미가스, 토콜로시, 암파라, 개구리 아기	부족 신화와 자연 속 정령 개념에서 유래, 조상 숭배와 생명·죽음의 순환 상징 (Neumann,1974/2009).
6. 기타지역	칼리, 람마스, 바호무트, 지니, 라미아, 가르쿨 등	신화와 종교적 신앙에서 기원, 인간 욕망과 죄를 경고, 신의 분노와 심판 상징 (Neumann, 1974/2009).

괴물은 특정 문화권이 억압하거나 두려워하는 심리적 요소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존재로 각 지역의 문화적 무의식 속에서 표상된다. 예를 들어 유럽의 드래곤은 자아가 모성적 권위로부터 독립하려는 심리적 투쟁을 상징하고 동아시아의 구미호는 여성성과 욕망, 속임수에 대한 남성 사회의 불안을 드러낸다(Neumann, 1974/2009). 요로나는 상실과 죄책감을 겪는 여성의 원형으로, 파괴적 모성의 그림자를 표현하는 사례이며, 미노타우로스는 미궁이라는 상징 공간 속에서 자아 성장을 위한 통과의례적 시련을 보여준다(Campbell, 1949/2018).

어떤 지역에서는 괴물이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존재로 간주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신성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유럽의 하피는 파괴적 모성을 상징하는 반면 아시아의 용은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며, 중동 신화의 지니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동시에 파멸을 초래하는 이중적 존재로, 모성의 보호성과 파괴성을 동시에 지닌다(Jung, 1984/2002). 이처럼 동일한 존재가 상반된 의미로 해석되는 현상은 괴물이 인간의 심층 심리와 문화적 상상력의 산물일 뿐 아니라, 상징의 복잡성과 다층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Carroll, 1990; Cohen, 1996).

사회적 차원에서 억압된 집단의 그림자가 괴물화되기도 한다. 예컨대 유대인, 이교도, 나병 환자에 대한 괴물화는 사회의 불안과 죄의식이 투사된 사례이며, 웬디고나 트롤과 같은 존재는 통과례적 시련 속에서 자아가 성숙해지는 서사를 반영한다(Campbell, 2018/1949).

Neumann(1974/2009)은 ‘공포의 어머니’ 원형이 전 세계 신화에서 반복적으로 출현한다고 보았으며, Jung(1984/2002)은 괴물이 출현하는 무대로서의 대지와 바다가 생명과 파괴, 양육과 억압의 모성적 이중성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괴물은 지역 문화와 집단 무의식 속에서 개별화되면서도, 인간 보편의 심리 구조를 드러내는 상징적 존재로 기능한다.

4. 문학, 문화에 따른 분류

괴물은 대중문화 속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재해석되며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상징적 존재로 고전 작품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리 잡아왔다. 문학에서는 철학적·심리적 질문과 인간의 도덕적 경계를 탐구하는 소재로 활용되었다(Asma, 2009; Cohen, 1996).

“Monster movie”라는 용어는 1958년에 등장했으며 “monster film”은 1941년부터 사용되었다(Online Etymology Dictionary). 괴물은 문학과 영상 매체에서 억압된 본능, 욕망, 불안을 표상하며 모성 콤플렉스, 그림자, 통과례와 같은 분석심리학 개념을 통해 인간 심리의 변형과 성숙 과정을 드러낸다(Jung, 1950/2016).

예를 들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2001)의 유바바는 억압적 모성 콤플렉스를 형상화한 존재이며, 치히로는 그 통제를 극복하며 자립의 통과례를 경험한다. 『지킬박사와 하

<표 4> 문학, 문화에 따른 분류

유형	대표 작품	특성 및 배경
1. 소설	지킬박사와 하이드, 프랑켄슈타인, 드라큘라, 데스노트	인간의 도덕적 한계, 과학적 발전에 대한 경고, 억압된 본능과 욕망의 상징으로 독자에게 철학적·심리적 질문을 던짐 (Carroll, 1990).
2. 영화	쥬스, 고질라, 에일리언, 더 썸, 주라기 공원, 새벽의 저주, 반지의 제왕, 판의 미로, 조커, 워쳐, 배놈, 오징어 게임 (드라마)	괴물이 시각적으로 구체화되어 공포와 긴장감을 자극하며, 사회적 불안과 과학기술, 환경 문제와 같은 현대적 이슈를 상징적으로 표현 (Asma, 2009; Gilmore, 2003).
3. 애니메이션	모노노케 히메, 센과 치이로의 행방불명, 귀멸의 칼날, 신비아파트, 몬스터 주식회사, 괴물의 아이, 티니핑, 인사이드 아웃 등	괴물이 성장과 모험의 동반자로 등장하거나 인간과의 갈등을 통해 도덕적 교훈과 공존의 가치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활용(Campbell, 2018/1949).
4. 게임	레지던트, 이블 빌리지, 데스노트, 포켓몬스터, 스프링키	괴물이 플레이어의 도전과 성취의 대상으로, 또는 스토리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여 긴장감과 몰입감을 극대화 (Carroll, 1990)

이드』(1886)의 하이드는 억압된 욕망과 충동의 그림자이며 통합되지 못할 경우 파괴로 이어지는 경고를 담고 있다. 『다크 나이트』(2008)에서는 조커가 배트맨의 그림자로 나타나며 두 인물의 갈등은 자아 통합을 향한 심리적 투쟁을 상징한다. 『인사이드 아웃』(2015)의 빙봉은 억압된 감정의 상징으로 그의 희생은 그림자의 수용과 심리적 성숙을 의미한다(Neumann, 2004/2010). 『반지의 제왕』(2001~2003)의 골룸은 프로도의 내면 그림자를 반영하고 『판의 미로』(2006)의 오펠리아와 『괴물의 아이』(2015)의 렌은 괴물과의 시련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아 성장을 이룬다(Gilmore, 2003).

괴물은 문학,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문화적 장르 속에서 인간 내면의 심리적 구조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기능한다. 한편, 『오징어 게임』(2021)은 초자연적 괴물이 등장하지 않지만, 인간이 가진 극단적 생존 본능과 이기심, 경쟁 속의 폭력성과 같은 내면의 어두운 측면을 극단적으로 형상화하여 그림자의 표현으로 기능한다. 이 작품은 괴물을 외부 존재가 아닌 인간 내부의 심리적 구조로 전환시킴으로써 윤리적 갈등과 무의식의 투쟁을 드러내는 새로운 형태의 괴물성을 보여준다. 괴물은 단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무의식이 형상화된 존재이며, 모성과 그림자, 통과의례라는 심리학적 여정을 통해 자아가 통합에 도달하도록 돕는 상징적 중재자로 작용한다(Cohen, 1996; Jung, 1950/2016).

괴물은 단순한 초자연적 존재를 넘어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한 상징적 존재로 이해될 수 있다(Jung, 1950/2016). 무의식은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인류가 태곳적부터 반복적으로 경험해 온 집단적 체험과 조건들을 담고 있다(Neumann, 2004/2010). 이는 신화적 상징을 통해 표현되며 의식의 활동을 조절하고 통합된 전체 정신을 실현하는 원동력이 된다(이부영, 2021b). 무의식은 본질적으로 미지의 영역을 중심으로 상징들을 자연스럽게 모으며 의식화의 과정에서 이 상징들이 구체화된다. 괴물은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탄생한 상징적 존재이며 그 다양한 모습과 속성은 무의식의 여러 측면을 반영한다. 각 괴물의 상징은 무의식이 가진 본질적 부분을 드러내며 의미의 새로운 면을 밝힌다.

괴물은 특정한 하나의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형태, 지역, 역사, 문화적 맥락을 넘나들며 중첩된 특징을 가진다(Gilmore, 2003). 이러한 중첩성은 괴물이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 심리와 문화적 상상력을 반영하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존재임을 보여준다(Cohen, 1996). 괴물은 단순한 환상이 아닌 인간 내면과 사회적 현실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이며, 이를 통해 인간이 자신의 무의식과 대면하고 내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III. 모래놀이치료에서 괴물의 상징성

1. 모성 콤플렉스의 상징

분석심리학에서 모성 콤플렉스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갈등과 억압, 이상화된 모성에 대한 동경을 포함하며, 이는 괴물의 창조와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괴물의 다양한 유형을 분석한 결과, 형태, 역사, 지역, 문학과 문화 등 다양한 맥락에서 모성 콤플렉스와 깊이 연관된 상징적 의미가 드러난다. 모성 콤플렉스는 심리적 발달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과도한 의존이나 반발은 성인기의 대인관계와 자아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어머니는 생명의 자궁이자 무덤으로, 양육과 보호의 긍정적 측면과 함께 억압과 파괴의 부정적 측면도 지니고 있다(von Franz, 1974/2021).

괴물은 종종 그림자로 나타나며 이는 억압된 감정이나 욕망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임신 중인 괴물 타우르트는 하마, 악어, 암사자, 여성의 형상을 결합하여 보호와 위협의 이중적 속성을 상징한다. 선한 여신 하토르 역시 하마 형상의 저승 여신으로, 생명과 보호의 상징임과 동시에 전쟁과 죽음의 여신으로 묘사된다(Neumann, 1974/2009). 이처럼 괴물은 모성 원형의 복합적 속성을 구체화하며, 인간 내면의 양가적 심리를 드러낸다.

Jung은 집단 무의식의 원형이 투사될 때 강렬한 감정 반응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모든

무의식의 내용이 여성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인류의 역사와 개인 발달 과정에서 무의식의 근원은 모성적이고 여성성의 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Neumann, 1974/2009). 모성 원형은 보호와 양육뿐만 아니라 억압과 파괴를 포함하며, 개인의 어머니와의 갈등과 결합할 때 모성 콤플렉스로 발전한다. 이러한 부정적 모성 이미지는 용, 스팅크스, 에키드나 같은 괴물 이미지로 표상된다(장미경, 2024). 그리스 신화의 키르케, 세이렌, 메두사, 동양 신화의 구미호, 유럽 전설의 라미아, 뱀파이어 전설의 카밀라, 독일 전설의 백설공주 계모 등은 생명 창조와 파괴의 양면성을 지닌 부정적 모성 원형의 대표적 사례이다.

자연재해형 괴물은 인간이 대지와 모성적 에너지에 느끼는 양가적 감정을 상징한다. 태풍, 해일, 지진, 화산과 같은 자연재해는 생명을 주는 동시에 파괴하는 대지와 바다의 양면적 속성을 드러낸다. 이는 대지를 생명을 주는 어머니로 바라보면서도 그 어머니가 가진 가혹하고 파괴적인 면을 두려워하는 심리를 반영한다. 『태원지』에 등장하는 여성 괴물은 동서양 서사에서 공유하는 “바다 밖 여성 괴물”의 상상과 공포를 반영하며 원초적 어머니와 거세적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섹슈얼리티에 대한 경계를 담고 있다(김선현, 2021). 바다를 배경으로 한 그리스 신화의 스킬라와 크라켄 역시 무의식과 모성적 심연을 탐구하려는 인간의 욕망과 공포를 상징한다.

역사적 괴물은 특정 시대의 사회적 불안과 죄의식을 투영하며 중세의 드래곤과 같은 괴물은 인간이 신과 자연 그리고 창조주(모성적 존재)에 대해 느끼는 경외와 두려움을 형상화한다. 지역적 괴물은 지역마다 다른 문화적 맥락 속에서 모성적 이미지의 양면성을 반영하며 문학과 문화 속 괴물은 모성 콤플렉스가 개인의 내적 심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규범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괴물은 모성 콤플렉스의 상징이며 괴물을 마주하고 극복하는 과정은 곧 모성 콤플렉스의 억압적 에너지를 의식화하고 통합하는 과정이다. 이는 분석심리학에서 말하는 개성화(individuation)의 핵심 과정으로 무의식의 억압된 내용과의 대면을 통해 자아가 확장되고 내면의 갈등을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신적 성숙의 여정을 의미한다. 괴물과 싸움은 단순한 공포의 체험이 아니라, 자율성과 창조성을 회복하며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힘을 회복하는 통과의례적 경험이다. 괴물은 파괴자이자 안내자이며,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할 심리적 문지기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 사례는 아동이 놀이치료에서 자연재해형 괴물(화산)과 동물형 괴물(드래곤과 독뱀)을 통해 모성적 억압과 양면적 감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장면을 보여준다. 아동 A(7세, 남아)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차도를 뛰어드는 등 위험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였다. 아동의 부는 물질적 돌봄만으로 부모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으며, 아동의 모든 자녀와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회피하며 훈육에도 소



[그림 4] 보호와 파괴가 공존하는 불안정한 모성의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는 놀이장면

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 태도는 아동에게 안정감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아동은 내적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는 불안정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하였다.

이러한 정서적 결핍과 심리적 불안정은 아동의 놀이 장면에 상징적으로 반영된다. 아동의 놀이 장면을 살펴보면 화산 밑 동굴 안에는 엄마와 아기가 있고 동굴 입구에는 화려한 색의 독뱀들이 꼬아리를 틀고 있으며 화산 꼭대기에는 머리가 두 개 달린 검은 드래곤이 동굴을 지키고 있다.

동굴은 분석심리학에서 자궁과 무의식을 상징하는 공간이며 화산 위라는 배치는 보호와 파괴가 공존하는 불안정한 모성의 상징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Jung, 1950/2016; Neumann, 1974/2009). 이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동시에 위협을 감지하는 아동의 심리를 반영한다. 독뱀은 화려한 색채와 형태에서 오는 공포와 매혹의 이중성을 통해 모성적 양면적 감정을 나타낸다. 아동이 어머니에 대해 느끼는 애정과 두려움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며 통제와 보호 사이에서의 심리적 갈등을 상징한다. 머리가 두 개인 드래곤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내적 갈등과 미분화된 본능을 상징하며 아동의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갈등이 놀이를 통해 투사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내적 갈등은 정서적 안정과 돌봄을 원하는 욕구와 반복적으로 외면당하거나 방임 당했다고 느끼는 경험에서 비롯된 상실감과 분노 사이의 이중적 감정이다. 아동은 사랑받고 싶은 욕망과 동시에 느끼는 거절감, 혼란, 외로움을 통합하지 못한 채 양면적 정서를 괴물 이미지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통합의 필요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Jung(1985/2021)은 용을 부정적 모성 콤플렉스의 상징으로 보며 자녀의 개성을 억압하고 창조적 힘을 제한하는 “집어삼키는 어머니”로 설명하였다. 또한, 자연재해형 괴물인 화산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대지와 자연의 힘을 상징하며 이는 중세 시대나 서양 신화에서 종종 인간의 죄나 신의 분노, 종교적 두려움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화산은 아동이

부모의 감정적 단절과 냉담한 반응 속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분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분노는 발달 과정에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가 반복적으로 수용되지 않거나 거절당함으로써 축적된 것이다. 특히 자율성과 자기표현이 억압될 때 형성되는 좌절과 거절감에서 비롯된 감정으로, 아동은 이를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형태로 표상한 것이다.



[그림 5] 모성적 통제에 대한 내적 갈등과 자율성을 회복하려는 심리적 시도를 보여주는 모래놀이 장면

다음 아동 B(12세, 남아)의 모래 장면은 그림5와 같이 동물형 괴물(케르베로스), 혼합형 괴물(포세이돈), 자연재해형 괴물(물의 정령)과 인간형 요소(고대 병사들)의 치열한 싸움을 보여준다.

초등학교 5학년 남아의 부는 직장이 지방이라 주말에만 가족이 함께할 수 있고, 모든 세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많이 지쳐있었고 스트레스가 높았다. 모는 아동에게 “네가 형이니가 잘해야지”, “엄마를 도와야지”, “그런 것도 못 하나”, “아빠도 없는데 너까지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떡하나”, “네가 아빠 대신 잘해야 한다”와 같은 말로 정서적 부담을 주었고, 자주 화를 내며 통제적인 양육 태도를 보였다. 모는 장남인 아동에게 부를 대신하는 과도한 역할을 기대하고 통제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아동은 동생에게 화를 내거나 명령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며 어머니의 양육 방식을 모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부모 앞이나 친구들과 앞에서는 의기소침하고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중적인 행동 특성을 나타냈다.

케르베로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지하세계를 지키는 위협적인 괴물로, 억압된 무의식의 영역을 지키는 심리적 문지기로 이해될 수 있다(Kerenyi, 1951; Jung, 1984/2002).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으로 감정의 심연과 억눌린 정서를 상징하며, 감정이 억압되었을 때의 혼란과 파괴적 힘을 내포한다(Neumann, 2004/2010; Hillman, 1979). 물의 정령은 유동적이고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의 상징으로, 감정의 해소되지 않은 긴장과 무의식의 감정 에너지를 상징

적으로 표현한다(김채림, 2023; 이정은, 2024).

고대 병사들은 규칙과 사회적 기대를 상징하며 이는 아동이 규율과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싸움 후 말만 살아남은 것은 본능적 에너지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를 지휘하고 통합할 자아가 약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이 보호자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책임감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심리를 반영한다. 울타리와 테두리는 보호적 모성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한적이고 통제된 환경에서 아동이 느끼는 외부적·내부적 한계를 나타낸다. 아동이 울타리를 괴물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울타리의 형태는 뱀과 유사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며 다른 어떤 요소보다 강렬한 인상을 준다. 울타리는 모든 것을 사로잡아 꼼짝달짝 못 하게 조이는 듯한 느낌을 주며 이는 모성적 통제와 억압을 강렬하게 암시한다. 이러한 상징은 아동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모성 콤플렉스의 영향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이 괴물과 싸움을 시작한 것은 내적 갈등을 탐구하고 해결하려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이 싸움은 단순한 억제가 아니라 통합을 시도한 과정으로 본능적 에너지와 생명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싸움의 과정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는 아동이 두려움에 억눌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고 해소하려는 용기를 상징한다. 괴물과 싸움은 자아의 성숙과 독립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어머니의 과도한 통제를 극복하고 자율성과 창조성을 발견하려는 여정을 상징하며 이는 모성 콤플렉스와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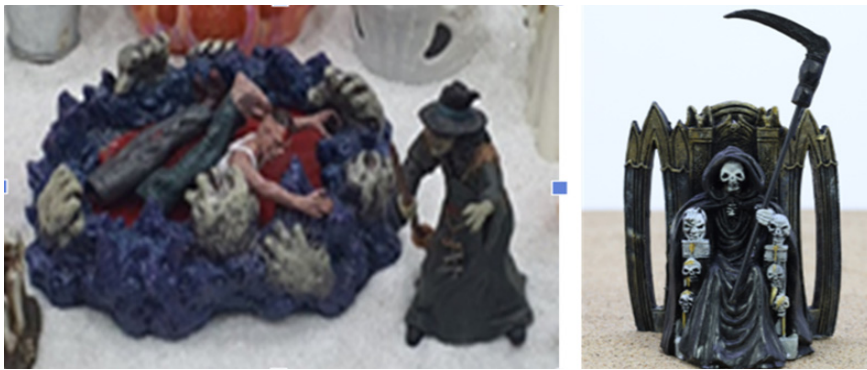
2. 그림자의 상징

괴물은 인간 내면의 그림자(shadow)를 상징한다. Jung의 이론에 따르면 그림자는 인간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본능, 욕망, 억압된 자아, 열등한 인격으로 구성되며, 신화와 전설 속 어두운 신, 귀신, 마귀, 괴물의 형상으로 투영된다고 하였다(이부영, 2021a). 그림자는 의식 세계에서 억압된 내면의 측면을 드러내며 두려움과 공포를 자극하는 동시에 매혹적인 성격을 지닌다.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의 미노타우로스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와 폭력성을, 동양의 요괴와 귀신은 죄책감과 분노를 상징하며 모두 집단 무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현대 서사에서 뱀파이어와 좀비는 무의식적 욕망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투영한 상징적 존재들이다. 조셉 캠벨은 “무의식 속 원형들은 신화와 꿈에서 악마적 인물로 구체화된다”라고 설명하며(Campbell, 2018/1949.) 그림자가 다양한 서사 속에서 상징적 역할을 수행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림자는 단순히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억압된 감정과 욕망,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한다. 분석심리학에서 그림자의 직면은 개성화 과정의 핵심으로, 이를 인식하고 수용함으로써 인간은 자아 통합과 정신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 신화 속 괴물은 이러한 그림자의

상징적 표현으로,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은 내적 통합과 심리적 성숙으로 이어진다. 괴물은 인간 내면의 어두운 측면이 외부의 존재로 구체화된 것이며,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그림자를 외부적 형상으로 투사함으로써 직면할 기회를 얻게 된다. 괴물과 그림자의 관계는 무의식 속 깊이 자리한 두려움, 억압된 욕망,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갈등이 외부적 형상으로 표출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자는 통합되지 않을 경우 외부의 위협으로 나타나지만, 통합될 경우 심리적 성장과 창조성의 원천이 된다.



[그림 6] 억압된 그림자 적 감정과 무의식의 불안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모래놀이 장면

다음 사례는 청소년이 놀이치료에서 인간형 괴물과 초자연적 괴물(좀비, 해골, 유령, 흡혈귀, 지옥의 사자 등)을 통해 그림자로서의 내면적 불안과 억압된 감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장면을 보여준다.

청소년 C(15세, 남아)는 감정 표현이 적고, 일상생활에서 무기력함을 자주 보였으며 학업에 대한 의욕도 낮은 상태로 상담에 의뢰되었다. 부모와의 소통에서 반복적으로 갈등을 경험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하며, 내면에 감정을 억누른 채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주요 상담 주제로 제시되었다.

청소년 C는 친정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폭력 속에서 성장한 모, 그리고 자기주장이 강하고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하는 부 사이에서 자랐다. 모는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고 정서적으로 긴장과 불안을 자주 느끼며 자녀에게 언행에 대한 강한 통제를 시도하였고, 부는 주변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직접적인 표현을 강조하는 양육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상반된 부모의 양육 방식은 청소년에게 혼란을 유발하였고, 그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자주 억누르며 생활해왔다. 특히 부모는 청소년에게 책임감 있는 태도와 성숙한 행동을 요구하면서 감정 표현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는 그가 자신의 진짜 욕구를 억압하게 만드는 환경을 형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은 분노, 좌절, 반항심과 같은 감정을 직접 드러내지 못하고 점차 내면화하였으며, 주체적 선

택에 대한 확신을 잃고 무기력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억압된 감정은 무의식 속 그림자 적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놀이 장면에서 괴물의 형상으로 투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의 모래놀이 장면을 살펴보면 하얀 모래 위에 할로윈을 주제로 한 좀비, 해골, 유령, 흡혈귀, 지옥의 사자 등을 배치하였다. 이 모래 상자는 인간형 괴물(좀비, 해골, 흡혈귀)과 초 자연형 괴물(유령, 지옥의 사자)을 통해 청소년이 내면에 억눌러 온 두려움, 죄책감, 분노, 무력감 등 그림자 적 감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흡혈귀는 인간의 피를 빨아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로 피는 정서적 에너지와 생명력을 상징한다. Jung 학파의 꿈 해석에 따르면 흡혈귀에게 피를 빨리는 장면은 생명력을 상실하고 의지와 활동성을 잃은 무력한 상태를 의미하며(Boa, 1988/2004), 이는 청소년이 내면에서 느끼는 정서적 소진과 자기 존재감 상실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좀비와 해골은 생명력 없는 존재로 이는 통제되지 않은 집단적 무의식이나 감정적 마비 상태를 상징하며 청소년의 억압된 내적 그림자, 특히 무기력과 정체감 혼란을 드러낸다. 유령과 지옥의 사자는 억압된 기억과 죄책감, 그리고 무의식 깊은 곳에 잠재된 두려움을 반영한다. 이는 청소년이 과거 경험 속에서 느낀 정서적 상처와 불안을 직접 표현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투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은 놀이 장면을 통해 자신의 그림자와 처음으로 접촉하였으며 내면의 억압된 감정을 외부 형상인 괴물로 시각화함으로써 그것을 직면하고자 하는 무의식의 시도를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공포의 투사가 아니라 무의식 속 그림자와의 대면을 통해 자아 통합을 향한 전환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자는 직면하고 통합되지 않으면 외부의 위협으로 경험되지만 이를 수용하고 이해함으로써 심리적 성장과 치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두려움은 내면에서 비롯되며 외면할수록 증폭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고 직면할 때 심리적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어둠과 두려움은 단순히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장과 보호를 촉진하는 동기로 작용한다(서천석, 2018).

그림자는 과거의 경험과 억압된 감정에서 형성되어 무의식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 이는 꿈, 투사, 실수 등으로 나타나며, 심각한 경우 신경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설화와 민담에서 괴물을 퇴치하고 불사의 약을 얻는 이야기는 억압된 그림자를 직면하고 이를 통합하여 인간성을 실현하는 과정을 상징한다(Neumann, 2004/2010).

청소년의 놀이에서 나타난 괴물들은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그가 억압하고 부정했던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한 것이며, 이를 직면하는 과정은 심리적 성숙과 자아 통합으로 가는 여정을 의미한다. 그림자는 인간 정신의 성숙과 자아 통합, 개인의 내적 성장과 심리적 치유에 필수적이다.

괴물

우리 안에는 모두 괴물이 살고 있다.
그 괴물들은 항상 우리를 나쁜 길로 유혹한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점점 힘들어진다
과거라는 후회의 괴물
미래라는 걱정의 괴물
하지만
우리는 결코 괴물에게 지지 않는다.
우리한테는 현재라는 마법이 있다.

중학교 1학년 남자 청소년이 쓴 시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을 괴물로 묘사하며, ‘현재라는 마법’을 통해 괴물을 극복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는 Jung의 그림자 통합 이론과 유사하게 무의식적 상징을 통해 내면의 갈등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현재라는 마법’은 자기실현(Self-realization)을 의미하며 내면의 괴물과 화해하고 이를 통합하는 여정을 나타낸다.

Jung의 이론에 따르면, 괴물은 억압된 욕망과 감정이 투영된 그림자의 상징적 존재다. 이를 대면하고 통합하는 과정은 단순한 제거가 아닌 내면의 어두운 면을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심리적 성숙의 과정이다. ‘꿈 상징 사전’에 따르면 괴물을 죽이는 것은 억압된 욕구와 충동을 이해하고 이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여정을 상징한다. 이부영(2021b)은 마음속 파괴적 충동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자신의 그림자에 휘둘리지 않고 이를 통제할 힘을 얻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인식은 무의식의 파괴적 힘에 면역력을 부여하며 궁극적으로 그림자에 의해 지배되지 않게 한다.

과거 신화와 민담에서도 괴물은 인간의 본능적 욕망과 도덕적 갈등을 시험하며 이를 극복한 자만이 내적 성장과 보상을 얻었다. 현대 사회에서도 괴물은 억압된 감정과 편견, 차별을 상징하며 이를 직면하고 통합하는 작업은 개인과 사회의 치유와 성장을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전통 의례와 축제를 예로 들면, 탈춤과 그림자놀이는 재앙과 역병의 그림자를 축제로 승화시키며 집단적 치유와 정서적 해소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이는 괴물이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내적 성장을 위한 안내자이자 창조적 변화를 이끄는 상징적 동반자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괴물과 대면은 억압된 감정을 이해하고 통합하며 자기실현과 전일성(wholeness)에 도달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작용한다.

3. 통과 의례의 상징(보물을 지키는 수호자)

괴물은 통과 의례를 상징하며, 인간이 성장과 변화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전과 시련의 상징적 존재로 묘사된다. Jung(1964/2009)은 인간이 자기실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의식 속 그림자를 직면해야 하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괴물은 개인이 넘어야 할 심리적 장벽이자 변화와 성장의 관문을 지키는 존재로 작용한다.

고대 신화와 전설에서 괴물은 금지된 영역과 귀중한 보물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등장하며, 그리스 신화의 히드라는 헤라클레스의 강함과 지혜를 시험하고 케르베로스는 죽음의 경계를 넘어 정체성을 획득하도록 도전한다. 동양 신화의 구미호는 도덕성과 욕망을 시험하며, 이를 극복한 자만이 보상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서사 속에서 괴물은 영웅의 내적 통합과 성숙을 촉진하는 필연적인 존재로 나타난다.

현대 서사에서도 괴물과 시련은 내적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2001)의 치히로, 《겨울왕국 2》(2019)의 엘사, 《인사이드 아웃》(2015)의 라일리는 각기 시련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내적 통합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고대 신화부터 현대 이야기까지 괴물이 통과 의례의 상징으로서 인간의 내적 성장을 이끌어왔음을 증명한다.

발달의 전환은 본질적으로 두려움을 동반하며 이는 집단 무의식의 에너지에서 비롯된다.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낡은 자아의 희생이 필요하며 괴물이 지키는 보물은 단순한 물질적 가치를 넘어 인간 정신의 깊은 내면을 상징한다. 이러한 전환은 낡은 자아의 죽음과 새로운 자아의 탄생을 통해 이루어지며 괴물은 이를 상징하는 핵심적 존재로 기능한다.

아동들의 모래놀이에서 보물을 지키는 용은 시련의 상징으로 이를 극복한 후 진정한 보물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괴물은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이를 지키기 위한 탐구 과정을 상징한다. 보물을 수호하는 괴물은 신성함과 결부되며 보물과 연관된 신성한 장소를 지키는 존재로 묘사되기도 한다. 더불어 괴물은 죽은 영혼들이 통과해야 하는 지하세계의 문을 지키는 상징적 존재로 등장한다(Neumann, 1974/2009; 이광자, 2010).

고대 신화에서 그리폰은 생명 나무를, 용은 황금사과와 황금 양털을 수호하며, 디오니소스의 술잔이 뱀들에 의해 보호되는 이야기는 상징적 진리를 전달한다. 한국민담에서도 보물을 지키는 괴물은 초자연적 능력을 상징하며 이를 획득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한 시련과 모험이 필요하다고 묘사된다(이부영, 2021b). 이 보물들은 단순한 물질적 대상이 아니라 생명, 지혜, 신성한 축복 등 인간이 갈망하는 중요한 가치를 상징하며 괴물은 인간의 변화와



[그림 7] 보물을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용의 형상을 통해 통과의례적 시련과 내면의 성장 과정을 상징하는 모래 장면

성장을 촉진하는 상징적 존재로 기능한다.

내면의 괴물 즉 두려움, 불안, 죄책감은 인간을 시험하는 존재다. 이를 극복한 자만이 자기실현과 심리적 평화, 진정한 자유와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 용과의 싸움은 영웅이 용기와 결단력을 시험받는 과정이며 이는 단순한 외적 갈등이 아니라 내면의 두려움과 한계를 극복하는 상징적 싸움이다. 이 위협을 감수하고 용에게 정복당하지 않은 자만이 ‘성취하기 어려운 보물’을 얻게 된다(장미경, 2024). 여기서 보물은 물질적 대상이 아니라 영웅의 내적 성장과 자기 극복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더 높은 존재로 발전한다.

괴물은 단순히 물리쳐야 할 적이 아니라 인간 내적 성장을 촉진하는 변형과 창조 의 동반자로 작용한다. 괴물을 물리친 뒤 남은 잔재는 열정, 지혜, 정화의 원천으로 전환될 수 있다(Estes, 1992/2015). Jung의 이론에 따르면 괴물은 내면의 미지와 직면하게 하는 상징으로 이를 수용하는 과정은 자기 통합과 성숙한 자아 형성을 이끈다. 영웅이 용(괴물)과 싸우는 모습은 원시적 갈등에서 해방을 위한 투쟁(battle for deliverance)의 상징적 표현이다.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영웅은 그림자와 같은 내면의 어두운 면을 마주한다. 이 그림자는 종종 용이나 무시무시한 적의 형태로 나타나며 영웅은 이를 물리침으로써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 이 여정에서 영웅은 죽음을 상징적으로 경험하고 다시 태어나는 변화를 겪는다. 산산이 부서지거나, 고래에게 잡아먹히는 등 죽음의 상징을 통해 완전한 변화를 이루게 된다(Campbell, 1949/2018). 이러한 싸움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도전과 성장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낸다. 불멸성과 같은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용, 뱀, 가시 돋친 식물과 같은 시련에 맞서야 한다. 괴물은 신성한 장소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왕궁의 문, 신전, 무덤과 같은 신성한 공간을 보호하며 이를 극복해야만 새로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괴물은 단순히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인간의 내적 변화와 성장을 위한 도전이자 필수적인 과정임을 드러내는 통과의례의 핵심 요소다. 괴물은 인격적 성숙과 의식의 확장을 이루기 위한 문턱,

곧 경계를 통과해 도달하는 새로운 차원의 입문을 상징한다. 조셉 캠벨이 말한 ‘영웅의 여정’에서처럼, 괴물을 만나는 순간은 단지 공포를 극복하는 시련이 아니라, 자아의 경계를 넘어 보다 깊은 자기 자신과 만나는 통과지점이다.

IV. 결론

괴물을 형태, 지역, 역사, 문화, 문학 등으로 분류하는 작업은 다양한 속성과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다. 이러한 분류는 특정 문화적 가치와 신념, 인간 내면의 갈등을 반영하며, 괴물이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 심리와 문화적 상상력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괴물은 공포와 매혹이라는 이중성을 통해 모든 시대와 사회에서 인간과 함께 상상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나 왔다.

괴물의 창조는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 요소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심리학의 핵심 개념인 모성 콤플렉스, 그림자, 통과의례를 통해 괴물의 상징성을 분석하였다. 이 세 개념은 각각 독립적인 의미가 있으면서도 조셉 캠벨(J.Campbell)의 ‘영웅의 여정(The Hero’s Journey)’에서 제시한 분리 - 입문 - 귀환의 구조와도 상호 연결되며 괴물이 인간의 심리적 성장 과정에서 수행하는 상징적 역할을 통합적으로 보여준다(Campbell, 2003; 장미경, 2024).

<표 5> 괴물의 상징성과 분석심리학 및 신화적 여정 구조 비교

심리 변화 단계	분석심리학 개념	캠벨의 영웅의 여정 단계	괴물의 상징적 역할
1단계	모성 콤플렉스	분리 (Separation)	보호와 억압의 양면성. 자아 독립의 심리적 투쟁
2단계	그림자	입문 (Initiation)	억압된 감정의 투사. 내면의 어두운 자아와 대면
3단계	통과의례	귀환 (Return)	성숙과 통합을 위한 마지막 시험. 문지기 역할

첫째, 모성 콤플렉스는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두려움, 보호와 억압의 이중적 감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분석심리학에서는 자아 발달 초기에 나타나는 심리적 구조로 본다. 어머니는 생명을 주고 양육하는 존재인 동시에 과도한 보호와 통제를 통해 자율성 발달을 억제하는 측면을 함께 지닌다. 괴물은 이러한 모성의 양가성을 외형화한 상징으로 자주 등장하며

의존에서 독립으로 나아가려는 내적 욕구와 충돌하는 외적 상징이 된다. 이러한 개념은 아동 A, B의 모래놀이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화산, 독뱀, 두 개의 머리를 지닌 드래곤, 포세이돈, 케르베로스 같은 괴물들은 강력한 감정 억제와 분노, 모성적 억압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이는 ‘영웅의 여정’에서 기존의 정체성과 심리적 안전지대로부터 이탈하는 ‘분리(separation)’ 단계에 해당하며 자율성을 향한 첫걸음을 상징한다.

둘째, 그림자는 인간이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억압한 감정, 본능, 충동, 부정적 자아의 집합체이다. Jung은 이러한 그림자가 통합되지 않을 경우, 괴물, 유령, 악령 등의 상징으로 외부 세계에 투사된다고 보았다. 청소년 C의 모래놀이에서 등장한 좀비, 흡혈귀, 유령, 해골 등은 무기력, 죄책감, 자기 부정의 그림자적 감정을 반영하며 괴물은 이 억압된 감정을 외형화하여 자아가 그림자를 직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흡혈귀는 피를 통해 생명을 흡수하는 존재로 정서적 소진과 존재감 상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처럼 괴물은 자아 통합과 창조성 회복을 위한 심리적 매개체로 기능한다. 이 과정은 무의식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입문(initiative)’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자아는 이 시련을 통해 통합과 성장을 준비하게 된다.

셋째, 통과 의례로서의 괴물은 자아가 자기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마주하는 마지막 관문을 상징한다. 보물을 지키는 괴물의 이미지는 심리적 성숙과 통합의 시련을 상징하며 이를 통과함으로써 새로운 자아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고대 신화 속 히드라, 구미호, 그리폰부터 현대 애니메이션의 치히로나 엘사, 라일리에 이르기까지 괴물은 시련의 상징이자 자기 발견의 문턱을 지키는 존재로 반복 등장한다. 이는 Campbell이 말한 ‘수호자’ 개념과도 일치하며 괴물과 싸움은 내면의 그림자와 대면, 자아 해체와 재탄생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전환은 ‘귀환(return)’ 단계에 해당하며 괴물을 통과한 자아는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성숙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지평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세 가지 상징은 자아의 성장과 변화 과정과도 연결된다. “자아는 깊고 넓은 바다 같은 무의식에서 태어나며, 대양의 섬처럼 작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에서 온갖 원초적 충동과 신화적 환상세계 속에 동화되었다가 차츰 현실 세계를 의식하며 그 영토를 넓혀 나간다. 자아는 외부 세계와 내면의 충동 사이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를 통해 현실과 환상을 구별하고 주체적 관점과 판단을 형성한다”(이부영, 2021b).

또한 괴물(monster)은 라틴어 monere(경고하다)에서 유래한 말로, 인간의 무의식이 자아에 보내는 경고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Carroll, 1990; Cohen, 1996). 괴물은 자아가 새로운 심리 단계에 진입해야 할 시점에 출현하여 억눌러진 감정과 본능을 통합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경고를 외면하면 괴물은 파괴적 에너지로 전환되지만, 수용하고 해석할 때 괴물은 내면의 진실과 자아 성숙을 이끄는 안내자가 된다.

결론적으로 괴물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포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본질적 진실을 직면하고 수용함으로써 더 넓고 깊은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괴물은 자기 통합, 인격의 성숙, 심리적 변화와 성장을 촉진하는 존재이며, 인간 존재의 심층을 탐색하는 심리적·치유적 탐색의 동반자라 할 수 있다. 괴물은 인간의 심리적 갈등과 성장, 변화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드러내는 심층 상징으로 기능하며, 무의식의 그림자와 모성적 갈등을 인식하고 통합하는 개성화의 여정에서 핵심적인 길잡이가 된다.

참고문헌

- 김선현 (2021). 표류하는 여성 괴물: 『태원지』속 여성 괴물의 형상과 의미. 민족문화사 연구, 77, 14-30
- 김채림 (2023). 용의 합일과 개성화 과정을 통해 본 『겨울왕국』 시리즈: 『레드북』을 중심으로. 연세상담코칭연구, 15, 9-28.
- 서천석 (2018). 그림책으로 읽는 아이들 마음. 창비
- 이경은 (2024). 애니메이션의 자연물 캐릭터라이징 연구: 『엘리멘탈』 ‘물’의 상상력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연구, 20(2), 210-235.
- 이광자 (2010). 독일민담 ‘세 마리 개 Die drei Hunde’(Ludwig Bechstein)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이해. 심성연구, 25(2), 194-223.
- 이부영a (2021). 그림자 2판. 한길사.
- 이부영b (2021). 자기와 자기실현 2판. 한길사
- 이준호 (2018). 『부산행』과 『서울역』을 통해 본 좀비의 무의식적 의미: 프로이트와 클라인 이론을 중심으로. 현대정신분석, 20(1), 63-88.
- 원형준 (2017). 영화 판의 미로에 나타난 ‘위대한 어머니 여신’ 연구: 에리히 노이만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8(4), 209-212
- 장미경 (2024). 분석심리학적 모래놀이치료 2판. 학지사.
- 장영란 (2015). 원형적 여성성과 위대한 어머니의 양가성의 상징과 이미지: 노이만의 분석심리학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44, 227-254.
- Asma, S. T. (2009). *On monsters: An unnatural history of our worst fears*. Oxford University Press.
- Boa, F. (2004). *융학파의 꿈 해석: 마리 루이제 폰 프란츠와의 대담* (박현순 & 이창인 역). 학지사. (원서 출판 1988)
- Campbell, J. (2018).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이윤기 역). 민음사. (원서출판 1949)
- Carroll, N. (1990). *The philosophy of horror: Or, paradoxes of the heart*. Routledge.
- Cohen, J. J. (1996). *Monster theory: Reading cultur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de Vries & Arthur de Vries. (2024). 인간본성과 삶의 이해를 위한 상징과 이미지사전 (장미경, 권미라, 김소명, 정현숙, 공역). 학지사. (원서출판 1974)
- Estes, C. P. (2015).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 원형심리학으로 분석하고 이야기로 치유하는 여성의 심리 (손영미 역). 이루. (원서출판 1992)
- Gilmore, D. D. (2003). *Monsters: Evil beings, mythical beasts, and all manner of imaginary terror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Hillman, J. (1979). *The dream and the underworld*. Harper & Row.
- Jung, C. G. (2002). 원형과 무의식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 숲. (원서출판 1984)
- Jung, C. G. (2009). 인간과 상징 (이윤기 역). 열린책들. (원서출판 1964)
- Jung, C. G. (2016). 아이온: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서 (김세영 & 정명진 역). 부글북스. (원서출판 1950)
- Jung, C. G. (2021). 영웅과 어머니 원형 (한국융연구원 C.G.융 저작번역위원회 역). 숲. (원서출판 1985)
- Kerenyi, K. (1951). *The gods of the Greeks*. Thames and Hudson.
- Liu, B. (2020). 세계 괴물 백과 (이지희 역). 현대지성. (원서출판 2018)
- Neumann, E. (2009). 위대한 어머니 여신: 인류의 무의식적 심층 속에서 여성의 원형을 찾는 위대한 탐구 (박선화 역). 살림. (원서출판 1974)
- Neumann, E. (2010). 의식의 기원사 (이유경 역). 분석심리학연구소 (원서출판 2004)
- Shelley, M. (2020). 프랑켄슈타인: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이나경 역). 아르테. (원서출판 1818)
- von Franz, M.-L. (2021). 민담 속의 그림자와 악 (이부영, 이광자 역). 한국융연구원. (원서출판 1974)

투고일: 2025. 01. 30
수정일: 2025. 03. 07
게재확정일: 2025. 03. 22

Types and Symbolism of Monsters as Projections of Fear and Fascination

Ina Kim*

Sumi Kim**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symbolic meaning of monsters in human psychology and culture from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Focusing on monsters appearing in various contexts such as mythology, literature, and film, it examined different types of monsters and their symbolisms. The study interpreted monsters using core concepts of analytical psychology, including the mother complex, the shadow, and rites of passag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the mother complex, monsters reveal the psychological conflict between dependence and repression that humans experience, and suggest the possibility of inner growth through overcoming these conflicts. Second, as representations of the shadow, monsters embody the repressed and darker aspects of the human psyche, and the process of facing and integrating these parts is shown to be essential for psychological healing and maturity. Third, as symbols of rites of passage, monsters represent the trials and challenges that must be confronted for maturity and transform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at monsters are not merely objects of fear, but important symbols that support human growth and self-understanding.

Keywords : monster, symbolism, mother complex, shadow, rite of passage

* Director, The Sun and Wind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Ph.D. Program in Child Welfare, Graduate School of Namseoul University (kia0121@naver.com)

** Director, Wee Center, Student Safety Support Division, Jeju City Office of Education Completed Ph.D. Coursework i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Copyright ©2025,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 INTRODUCTION

The word "monster" comes from the Latin *monere*, meaning "to warn." This suggests that monsters deliver inner messages to help us face fear, terror, and inner anxiety (Carroll, 1990; Cohen, 1996). Naturalists recorded that abnormal or grotesque animals were seen as signs of approaching evil. This is similar to the ancient Chinese idea that strange creatures or astronomical events were considered warnings sent from the heavens(Liu, 2018/2020, as cited).

Humanities scholar Cohen(1996) emphasized that monsters reflect society's fears and problems, and that they reveal the collapse of classification systems, the crossing of forbidden boundaries, and human desires and fears. He argued, "The monster always returns." Similarly, Carroll (1990) identified abnormality, the evocation of fear, and the violation of norms as key traits of monsters, and explained that monsters symbolize the boundary between normality and chaos.

In ancient mythology, monsters such as the Chimera and Medusa served as guardians of the boundary between humans and gods. In modern times, figures like Frankenstein and Godzilla have come to highlight ethical boundaries and the consequences of human greed, giving monsters more complex meanings. Recently, new symbolic forms such as environmental monsters or parental monsters have emerged, reflecting rising environmental issues, social anxiety, and complicated family relationships. These figures reinterpret ancient symbols of natural phenomena or the parental archetype in a modern context, acting as mediums that prompt reflection on mankind, nature, and family relationships, and connecting the past with the present. Monsters continue to evolve through changing times and play an important role as symbolic beings that reflect human psychology and culture.

In this way, monsters have come to be seen not just as objects of fear but as symbolic beings shaped by human psychology and cultural imagination. They repeatedly appear in mythologies, legends, literature, and film, evoking both fear and curiosity about the unknown. Exploring the symbolic meaning of monsters provides important insights into psychological conflicts, personal growth, and social anxiety experienced by humans.

In particular, in analytical psychology, monsters are viewed as projections of the unconscious and symbols of the psychological trials and transformations that humans must face (Jung, 1964/2009). Within this archetypal framework, monsters symbolically represent the internal conflicts and growth that people experience. They are not merely fictional creations but function as symbolic beings that continually generate meaning in human psychology and culture.

A symbol is an image that expresses internal human experience in an external form, carrying various meanings within cultural and psychological contexts. In analytical psychology, a symbol acts as a bridge between the unconscious and the conscious, reflecting the structure of the human psyche on both personal and collective dimensions. Symbols are rooted in archetypes. Archetypes do not appear directly in consciousness but are expressed through concrete forms such as dreams, mythologies, and fantasies (Jung, 1964/2009; Neumann, 2004/2010). These images are projected onto symbols that carry personal and cultural significance, allowing us to understand the archetypal energy through the symbol (Jang 2024). Archetypes are the underlying structures of symbols and reflect universal psychological patterns embedded in the collective unconscious of humanity (Jung, 1984/2002). Therefore, symbols have a dual nature, holding both universal meanings and personal or cultural significance. This duality is repeatedly revealed in symbolic systems such as mythology, religion, and literature. Such repetition shapes the underlying structure of the human psyche and shows how archetypal energies from the unconscious can be consciously integrated through symbols (Jang, 2024).

This study aims to classify monsters based on form, history, region, and literary and cultural elements, and to systematically organiz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monsters within each classification. Monsters appearing across various cultures show differences or shared traits in aspects such as form, abilities, origins, and behavior. These features provide important clues for the comparative and analytical study of monster symbolism. Based on this, the study explores the symbolic meanings of monsters through classification and connects them to key concepts in analytical psychology. To do so, it analyzes mythologies, literature, films, and sandplay therapy case studies, with a focus on how monsters function as symbols of the mother complex, the shadow, and rites of passage.

II. TYPES OF MONSTERS

This paper classifies monsters into four types—based on form, historical period, geographic region, and literary and cultural context—in order to explore their various representations from the viewpoint of analytical psychology. It focuses on how each type relates to the mother complex, the shadow, and rites of passage. Monsters are symbolic beings rooted in the human unconscious and serve as channels through which specific psychological conflicts or archetypal energies are represented.

1. Classification by Form

The classification of monsters by form is the most intuitive, based on the visual images people typically associate with the word “monster.” A monster’s appearance goes beyond

simple visual representation and functions as an archetypal image that reflects the psychological structure of the unconscious. This is deeply connected to key concepts in analytical psychology (Jung, 1964/2009).

Table 1. Types of Monsters by Form

Type	Key Monsters	Attributes
1. Animal	Gorgon, Chimera, Hatchling, Griffin, Hydra, Cerberus, Kraken, Scylla	Based on animal forms. Exaggerated body structures and supernatural abilities.
2. Human	Vampire, Zombie, Werewolf, Jiangshi	Human form with deformed or superhuman elements.
3. Hybrid	Echidna, Sphinx, Minotaur, Centaur, Siren, Mermaid, Medusa	Combination of human and animal features. Grotesque and alien.
4. Plant	Groot, Ent	Plant-based. Toxic.
5. Natural Disaster	Typhoon, Tsunami, Yellow Dust, Tornado, Thunder, Lightning, Storm, Volcano	Uncontrollable forces of nature.
6. Supernatural	Ghosts, Demons, Specters, Evil Spirits	Abstract or supernatural beings rather than physical forms.
7. Non-Human	Hitler, Stalin, Frankenstein, Serial Killers	Human in form, but lacking emotion and morality.



Figure 1. Hydra (AI)



Figure 2. Ent (AI)



Figure 3. Gorgon (AI)

Animal-type monsters symbolize primal forces such as instinctual power, the threat of nature, and destructive energy. For example, the Hydra, whose heads multiply when cut off, represents the controlling aspect of the mother complex, where repressed emotions intensify. This shows the psychological mechanism by which the nurturing and protective mother turns

into a repressive and threatening presence (Neumann, 1974/2009). Similarly, the Gorgon can be interpreted as an archetypal image of the destructive mother, embodying fear and coldness, in contrast to the wisdom-bearing mother like Sophia (Neumann, 1974/2009).

The plant-type monster, such as the Ent, represents both vitality and stagnation. It reflects a psychological tendency to delay or avoid transformation and growth while remaining connected to nature. This symbolizes how an overly fixed image of the protective mother can lead to psychological stagnation or prematurity.

Natural disaster-type monsters are extreme representations of the earth's and sea's destructive maternal aspects. Typhoons and tsunamis are linked to the overwhelming force of nature that humans cannot control. These images emerge when the unconscious mother figure is experienced as a repressive and terrifying power (Jung, 1964/2009; von Franz, 1974/2021).

Human-type monsters represent the shadow of the human psyche—externalized forms of repressed instincts, emotions, shame, and anger. The vampire, for instance, symbolizes repressed desire, obsession, and a craving for life energy. It is a projected image of the dark ego hidden in the unconscious. In this case, the monster is not only a projection of the shadow but also a symbol of the process of accepting and integrating the repressed ego (Jung, 1950/2016; Lee, 2021a).

Hybrid-type monsters are formed through the combination of incompatible elements and reflect psychological contradictions and an unintegrated ego. For example, the Sphinx challenges the hero with a riddle, serving as a symbolic gateway that marks a rite of passage toward ego development and integration. The trials in the stories of Hercules defeating the Hydra and Oedipus solving the Sphinx's riddle both symbolize an inner journey of ego growth (Campbell, 1949/2018).

Supernatural-type monsters (such as ghosts and demons) appear as personified forms of repressed emotions, guilt, or negative memories. They represent projections of the shadow and also symbolize the possibility of healing and maturation through the process of making the unconscious conscious. A ghost, as a symbol of externalized repressed emotions and memories, shows that facing and integrating them is a key stage in psychological healing (von Franz, 1974/2021).

Non-human-type monsters can be interpreted as social representations of the shadow that emerge when ethics and morality collapse. These are manifestations of the human shadow projected into outer reality and can be seen as collective projections of repressed aggression and destructive impulses (Cohen, 1996).

As described above, monsters reflect the structure of the human psyche and function as

symbolic beings that, through tension with the external world, facilitate a journey toward self-understanding and psychological growth (Jung, 1964/2009; Estes, 1992/2015). Therefore, the form of a monster is not merely about appearance but is closely connected to key concepts in analytical psychology, such as the duality of the mother complex (i.e., protection and repression), the projection and integration of the shadow, and the trials of rites of passage.

2. Classification by Historical Period

Monsters have evolved alongside history, gaining distinct meanings within each era’s unique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The table below categorizes monsters by historical period and summarizes the key characteristics and backgrounds of each era.

Table 2. Classification by Historical Period

Type	Key Monsters	Attributes and Background
1. Ancient Myths and Legends	Gorgon, Chimera, Griffin, Hydra, Sphinx, Echidna, Scylla, Kraken, Minotaur	Symbolize natural phenomena, human fear, and reverence toward the gods (de Vries & de Vries, 1974/2024).
2. Medieval	Dragon, Unicorn, Leviathan	Reflect a Christian worldview, emphasizing faith, moral order, sin, and depictions of demonic traits (Neumann, 1974/2009).
3. Renaissance	Basilisk, Griffin, Lucifer, Gorgon, Demon	As fantasy and imagination expanded, monsters were used as symbols of creativity and imagination in art and literature (Neumann, 1974/2009).
4. Modern (18th-19th Century)	Frankenstein, Dracula, Werewolf	Represent anxiety from science and industrialization, and serve as warnings against ethical transgressions and scientific hubris (Shelley, 1818/2020).
5. Contemporary (20th Century onward)	Terminator, Alien, The Thing, Zombie, Godzilla, Robot, Artificial Intelligence	Reflect science and technology, war, environmental issues, and psychological anxiety; monster types become more diverse

Monsters, within the context of their times, function as symbols of the human journey to understand and overcome both the inner world and the external world. They are connected in various ways to the mother complex, the shadow, and rites of passage (Neumann, 1974/2009).

Ancient monsters represented the boundary between natural phenomena and the divine, symbolizing chaos and fear. For example, the Minotaur reflects the shadow within the human psyche, while Echidna is interpreted as a symbol of the mother complex (de Vries & de

Vries, 1974/2024). As the mother of many monsters, Echidna embodies a dual nature—creating life while also producing destructive offspring. This reflects the ambiguous nature of the mother, representing both its nurturing and protective aspects as well as its repressive and destructive sides(Jung, 1985/2021).

In the medieval era, monsters embodied human sin and moral decay within the Christian worldview (Neumann, 1974/2009). The dragon, often depicted as guarding treasure, symbolizes the challenge of breaking free from dependence on the creator (the mother) to seek an independent ego. The knight's battle against the dragon reflects a rite of passage toward inner maturity and the formation of identity (Neumann, 1974/2009).

During the Renaissance, monsters were reinterpreted through imagination and creativity. The basilisk served as a warning against greed and the abuse of power, while the griffin, through its noble and protective image, revealed the repressive aspect of the mother complex. Lucifer, as a fallen angel, symbolized dark desires and internal conflict within the human inner world, exemplifying the monster engaging in a psychological struggle as the shadow.

In the modern period, *Frankenstein* (1818) symbolized the danger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xplorations that goes beyond ethical limits.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or and creature, it expresses both the mother complex and the shadow (Shelley, 1818/2020). The monster represents repressed instincts and impulses, and the narrative illustrates the psychological destruction that occurs when one fails to confront the shadow.

Modern monsters have become more diverse, reflecting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al anxiety, and environmental issues. For example, zombies symbolize an uncontrollable collective unconscious and are interpreted as a projection of the modern human shadow (Lee, 2018). Meanwhile, the Queen in *Alien* (1979) embodies an extreme form of the mother with duality—creating life while also being destructive. Her role in laying eggs and fiercely protecting them, ruthlessly annihilating intruders, symbolizes the repressive and destructive side of maternal protection (Neumann, 2009/1974; as cited in Jang, 2015; Won, 2017).

Monsters are not merely external projections of the repressed shadow. They are psychological indicators that symbolize the process of confronting and integrating the dark ego. They are also deeply connected to the dynamics of the mother complex and the rite of passage.

3. Classification by Geographic Region

Monsters from different regions reflect the unique characteristics shaped by their natural environments, religious beliefs, and social contexts. Their geographical distribution reflects

more than regional differences—it expresses the collective unconscious and archetypal images specific to each region (Jung, 1964/2009).

Table 3. Classification by Geographic Region

Type	Key Monsters	Attributes and Background
1. Europe	Chimera, Griffin, Dragon, Frankenstein, Harpy, Dracula, Werewolf, Zombie, Lorelei	Rooted in Christian worldview and mythology; symbolize sin, corruption, rebellion against gods, and divine punishment (Neumann, 1974/2009).
2. Asia	Gumiho, Dragon, Haetae, Oni, Jiangshi, Yamata-no-Orochi	Integrated with Eastern philosophies that value harmony between nature and humans (de Vries & de Vries, 1974/2024).
3. Americas	Wendigo, Chupacabra, La Llorona, Bigfoot	Arise from Indigenous beliefs, relationship with nature, and colonial history; reflect modern scientific and environmental concerns (Liu, 2018/2020).
4. Northern Europe	Troll, Jotunn, Draugr, Kraken	Rooted in Viking mythology and legend; symbolize harsh natural environments and the struggle for survival (Neumann, 1974/2009).
5. Africa	Migas, Tokoloshe, Ampara, Frog Baby	Derived from tribal mythology and the concept of spirits in nature; symbolize ancestor worship and the cycle of life and death (Neumann, 1974/2009).
6. Other Regions	Kali, Lammasu, Bahamut, Genie, Lamia, Gargoyle	Originating from mythologies and religious beliefs; warn against human desire and sin, symbolize divine wrath and judgment (Neumann, 1974/2009).

Monsters are symbolic representations of the psychological elements that specific cultures suppress or fear. They serve as representations of the cultural unconscious within each region. For example, the European dragon symbolizes the inner struggle of the ego to break free from maternal authority, while the East Asian Gumiho reflects male-dominant society's anxiety about femininity, desire, and deception (Neumann, 1974/2009). La Llorona represents the archetype of a grieving and guilt-ridden woman and illustrates the shadow of destructive motherhood. The Minotaur, within the symbolic space of the labyrinth, embodies a rite-of-passage trial for ego development (Campbell, 1949/2018).

In some regions, monsters are seen as destructive and negative beings, while in others, they perform sacred and positive roles. The harpy in European mythology symbolizes destructive motherhood, whereas the dragon in Asian traditions represents life and abundance. The genie

in Middle Eastern mythology is a dual-natured being that grants wishes but can also bring ruin, symbolizing both the protective and destructive sides of the mother (Jung, 1984/2002). This phenomenon—where the same entity is interpreted in opposite ways—highlights not only that monsters are products of deep human psychology and cultural imagination, but also the complex and multilayered nature of symbols (Carroll, 1990; Cohen, 1996).

On a societal level, the repressed shadow of the collective is sometimes turned into monstrous forms. For instance, the demonization of Jews, pagans, and lepers reveals projected social anxiety and collective guilt. Meanwhile, figures like the Wendigo or trolls reflect narratives of ego maturation through rite-of-passage trials (Campbell, 2018/1949).

Neumann(1974/2009) observed that the archetype of the Terrible Mother appears repeatedly across world mythologies, while Jung(1984/2002) explained that the earth and sea, as stages where monsters appear, symbolize the maternal duality of life and destruction, nurturing and repression. In this way, monsters are uniquely shaped by regional cultures and the collective unconscious, yet function as symbolic beings that reveal the universal structure of the human psyche.

4. Classification by Literature and Culture

Monsters have been continuously reinterpreted through various forms of popular media, functioning as symbolic figures that reflect the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s of their time. From classical works to contemporary stories, monsters have held a lasting presence. In literature, they are often used to explore philosophical and psychological questions and to examine the moral boundaries of humanity (Asma, 2009; Cohen, 1996).

The term “monster movie” first appeared in 1958, while “monster film” dates back to 1941 (Online Etymology Dictionary). In literature and visual media, monsters represent repressed instincts, desires, and anxieties. Through analytical psychology concepts such as the mother complex, the shadow, and rites of passage, they reveal the processes of psychological transformation and maturation (Jung, 1950/2016).

For example, Yubaba in *Spirited Away* (2001) embodies the repressive mother complex, while Chihiro undergoes a rite of passage toward independence by overcoming her control. Mr. Hyde in *Dr. Jekyll and Mr. Hyde* (1886) represents the shadow of repressed desires and impulses, serving as a warning of the destructive consequences when integration fails. In *The Dark Knight* (2008), the Joker appears as Batman’s shadow, and their conflict symbolizes a psychological struggle toward ego integration. Bing Bong in *Inside Out* (2015) is a symbol of repressed emotion; his sacrifice represents the acceptance of the shadow and psychological maturity (Neumann, 2004/2010). Gollum in *The Lord of the Rings* (2001-2003) reflects

Frodo’s inner shadow, while Ophelia in *Pan’s Labyrinth* (2006) and Ren in *The Boy and the Beast* (2015) establish their self-identity and ego growth through trials involving monsters (Gilmore, 2003).

Table 4. Classification by Literature and Culture

Type	Key Works	Attributes and Background
1. Novels	Dr. Jekyll and Mr. Hyde, Frankenstein, Dracula, Death Note	Explore the limits of human morality, warn against unchecked scientific progress, and symbolize repressed instincts and desires. They raise philosophical and psychological questions for the reader (Carroll, 1990).
2. Films	Jaws, Godzilla, Alien, The Thing, Jurassic Park, Dawn of the Dead, The Lord of the Rings, Pan’s Labyrinth, Joker, The Witcher, Venom, Squid Game (drama)	Monsters are visually embodied to evoke fear and tension, while symbolizing modern issues such as social anxiety, science and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concerns (Asma, 2009; Gilmore, 2003).
3. Animation	Princess Mononoke, Spirited Away, Demon Slayer, Shinbi Apartment, Monsters, Inc., The Boy and the Beast, Catch! Teenieping, Inside Out	Monsters appear as companions in growth and adventure or as figures of conflict with humans, serving as mediators for moral lessons and the value of coexistence (Campbell, 2018/1949).
4. Games	Resident Evil, Village, Death Note, Pokémon, Spelunky	Monsters appear as objects of challenge and achievement or as key narrative elements, enhancing immersion and tension in gameplay (Carroll, 1990)

Monsters function as symbols that reveal the psychological structure of our inner world across various cultural genres such as literature, film, and animation. *Squid Game* (2021) does not feature supernatural monsters, but it powerfully visualizes the dark aspects of human nature—extreme survival instincts, selfishness, and violence within competition—serving as a representation of the shadow. This work presents a new form of monstrosity by shifting the monster from an external entity to an internal psychological structure, exposing ethical conflicts and unconscious struggles. Monsters are not merely external threats but embodiments of the unconscious within. Through the psychological journey of maternalism, the shadow, and rites of passage, they act as symbolic mediators that guide the ego toward integration (Cohen, 1996; Jung, 1950/2016).

Monsters can be understood not simply as supernatural beings, but as symbolic figures born at the intersection of human consciousness and the unconscious (Jung, 1950/2016). The unconscious contains not only personal experiences but also collective experiences and conditions that humanity has repeated since ancient times (Neumann, 2004/2010). These are

expressed through mythic symbols, which help regulate the activities of the conscious and drive the realization of an integrated psyche (Lee, 2021b). The unconscious naturally gathers symbols around the unknown, and these symbols take form through the process of becoming conscious. Monsters emerge from this very process as symbolic beings, and their diverse forms and traits reflect different aspects of the unconscious. Each monster's symbolism reveals an essential part of the unconscious and brings new layers of meaning to light.

Monsters are not confined to a single type—they cross boundaries of form, region, history, and cultural context, often carrying overlapping characteristics (Gilmore, 2003). This overlapping nature shows that monsters are not just objects of fear, but complex, multi-layered beings that reflect human psychology and cultural imagination (Cohen, 1996). They are not mere fantasies, but mirrors of the human inner world and social reality, playing a key role in helping individuals face their unconscious and resolve inner conflicts.

III. THE SYMBOLISM OF MONSTERS IN SANDPLAY THERAPY

1. Symbol of the Mother Complex

In analytical psychology, the mother complex refers to the psychological conflicts and repression that arise from one's relationship with the mother, including the longing for an idealized mother. This complex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e creation and interpretation of monsters. An analysis of various monster types across form, history, region, literature, and culture reveals deep symbolic connections to the mother complex. The mother complex can have either a positive or negative influence on psychological development. Excessive dependence on, or rebellion against, the mother can strongly affect adult relationships and the formation of self-identity. The mother is both the womb of life and the grave—she embodies the positive aspects of nurturing and protection, but also the negative aspects of repression and destruction (von Franz, 1974/2021).

Monsters often appear as representations of the shadow, reflecting repressed emotions or desires. For instance, the pregnant monster Taweret combines the forms of a hippopotamus, crocodile, lioness, and woman, symbolizing the dual nature of protection and threat. Similarly, the benevolent goddess Hathor is also depicted as a hippopotamus-shaped goddess of the underworld, representing both life and protection, as well as war and death (Neumann, 1974/2009). In this way, monsters give form to the complex qualities of the maternal archetype, revealing the ambiguity of the human psyche.

Jung believed that when archetypes from the collective unconscious are projected, they trigger intense emotional responses. While not all unconscious content manifests as feminine, he

stated that the source of the unconscious is maternally rooted and closely connected to feminine consciousness throughout both human history and individual development (Neumann, 1974/2009). The maternal archetype includes not only nurturing and protection but also repression and destruction. When this archetype is combined with conflict with one's personal mother, it can develop into the mother complex. Negative maternal images are often represented through monsters such as dragons, sphinxes, and Echidna (Jang, 2024). Examples of the negative maternal archetype, which carries the dual nature of creating and destroying life, include figures like Circe, the Sirens, and Medusa from Greek mythology; the Gumiho from East Asian mythologies; Lamia from European legends; Carmilla from vampire tales; and the stepmother in the German *Snow White* legend.

Natural disaster-type monsters symbolize the ambivalent emotions humans have toward the earth and maternal energy. Natural disasters such as typhoons, tsunamis, earthquakes, and volcanoes reveal the dual aspects of earth and sea—both life-giving and destructive. This reflects the psychological tension of viewing the earth as a nurturing mother while simultaneously fearing her harsh and devastating side. The female monster in *Taewonji*¹⁾ embodies the shared East-West imagination and fear of female sea monsters, reflecting anxiety about the primal mother as well as the castrating mother, as well as vigilance against sexuality (Kim, 2021). Likewise, Scylla and the Kraken from Greek mythology, both linked to the sea, symbolize the human desire and fear of exploring the unconscious and the maternal abyss.

Historical monsters reflect the social anxieties and guilt of their time. Monsters like the dragon in the medieval period symbolize humanity's reverence for—and fear of—god, nature, and the creator figure (i.e., the mother figure). Regional monsters embody the dual aspects of the maternal image within different cultural contexts. In literature and popular culture, monsters show how the mother complex is expressed not only in individual psychology but also within social relationships and norms.

Ultimately, the monster is a symbol of the mother complex, and the process of confronting and overcoming the monster is also the process of becoming conscious of and integrating the repressive energy of that complex. This is a core aspect of individuation in analytical psychology: the journey of psychological maturity in which the ego expands by facing what is repressed in the unconscious, transforming inner conflict into creative energy. The battle with the monster is not simply an experience of fear—it is a rite of passage experience that restores autonomy, creativity, and the strength to live as one's genuine self. The monster is both destroyer and guide, a psychological gatekeeper that one must face in order to truly discover who they are.

1) A chronicle about the founding of a nation in a new land called Taewon.

The following case presents a sandpicture from play therapy in which a child symbolically expresses maternal repression and ambivalent emotions through natural disaster-type and animal-type monsters—a volcano, a dragon, and venomous snakes. Child A, a 7-year-old boy, was unable to control his emotions when his requests were rejected by others, and as a result, he showed dangerous and impulsive behavior, such as running into the street. His father believed he had fulfilled his parental role through material support alone, while his mother avoided emotional interaction and took a passive stance toward discipline. This parenting style failed to provide the child with emotional security and stability, leaving him to grow up in an environment marked by internal conflict and confusion.



Figure 4. A Sandpicture Depicting the Symbolic Meaning of Insecure Mother, in Which Protection and Destruction Coexist

These emotional deficits and psychological instability are symbolically reflected in the child's sandpicture. In the sand tray, a mother and baby are placed inside a cave beneath a volcano. At the cave's entrance, brightly colored venomous snakes are coiled, and a two-headed black dragon stands guard at the top of the volcano.

In analytical psychology, the cave is a symbol of the womb and the unconscious. Its placement on top of a volcano suggests the symbolic meaning of an insecure mother—where protection and destruction coexist (Jung, 1950/2016; Neumann, 1974/2009). This reflects the child's psychology of feeling insecure and threatened in his relationship with his mother. The venomous snakes, with their striking colors and form, represent the duality of fascination and fear, symbolizing the ambiguous feelings the child holds towards the mother. Through them, he visually expresses both affection for and fear of his mother, pointing to a psychological conflict between control and protection.

The two-headed dragon symbolizes unresolved inner conflict experienced in the child's relationship with his mother, as well as in his undifferentiated instinct. This dragon represents

the projection of the child's inner psychological conflict through play. The conflict stems from his desire for emotional care and stability, paired with feelings of loss and anger due to repeated emotional neglect. The child's desire for love and his simultaneous experience of rejection, confusion, and loneliness are expressed through these ambiguous emotions and monster imagery. This suggests a need for psychological integration.

Jung(1985/2021) viewed the dragon as a symbol of the negative mother complex, describing it as the "devouring mother" who suppresses the child's individuality and limits creative power. The volcano, as a natural disaster-type monster, symbolizes the uncontrollable forces of the earth and nature. In medieval times and Western mythology, such natural forces were often interpreted as manifestations of human sin, divine wrath, or religious fear. In this context, the volcano can be seen as reflecting the child's feelings of helplessness and anger in response to emotional disconnection and cold reactions from the parents. This anger is the result of accumulated experiences in which the child, throughout development, was denied emotional support and repeatedly had their feelings or needs dismissed or rejected. It particularly stems from the frustration and sense of rejection that form when autonomy and self-expression are suppressed. The child represented these emotions in the form of an uncontrollable natural disaster.

The following sandpicture by Child B (a 12-year-old boy) shows, as seen in Figure 5, a fierce battle involving an animal-type monster (Cerberus), a hybrid-type monster (Poseidon), a natural disaster-type monster (water spirit), and humans (ancient soldiers).



Figure 5. A Sandpicture Depicting Inner Conflict Toward Maternal Control and a Psychological Attempt to Restore Autonomy

The child, a fifth-grade boy, lived with his mother and two younger siblings during the week while his father, due to work in another region, could only return on weekends. The mother,

burdened with raising three children alone, was exhausted and highly stressed. She frequently placed emotional pressure on the child, saying things like, “You’re the oldest, so you have to behave,” “You need to help me,” “Can’t you even do that?” “Dad’s not here—how can you make things harder for me?” and “You have to do well in place of your father.” She often showed anger and a controlling parenting style, expecting the child to take on an excessive role as a stand-in for the absent father. As a result, the child sometimes imitated his mother’s parenting style by expressing anger and giving orders to his younger siblings. At the same time, he displayed a contrasting pattern of behavior—becoming withdrawn, passive, and timid in front of his parents and peers.

Cerberus, a threatening monster from ancient Greek mythology, guards the underworld and can be understood as a psychological gatekeeper that guards the repressed areas of the unconscious (Kerenyi, 1951; Jung, 1984/2002). Poseidon, the god of the sea, symbolizes emotional depths and repressed emotions, carrying the potential for chaos and destructive power when feelings are suppressed (Neumann, 2004/2010; Hillman, 1979). The water spirit represents emotions that are fluid and difficult to control, symbolically representing unresolved emotional tension and the emotional energy of the unconscious (Kim, 2023; Lee, 2024).

The ancient soldiers symbolize rules and social expectations, revealing the child’s inner conflict between discipline and instinct. The fact that only a horse remains after the battle suggests that instinctual energy is still present, but the ego that should lead and integrate it has been weakened. This reflects the child’s sense of self-sacrifice in trying to meet the expectations of a caregiver. The fences and boundaries symbolize the protective mother but also represent the external and internal limitations the child feels in a controlled and restrictive environment. Although the child did not explicitly label the fence as a monster, its form resembles a snake and leaves a particularly strong impression. The fence appears to trap everything inside, creating a sense of constriction and immobility, strongly suggesting maternal control and repression. This symbol visually expresses the child’s experience of the mother complex in his relationship with his personal mother.

The child’s initiation of a battle against the monsters can be interpreted as a positive sign of exploring and attempting to resolve inner conflicts. Rather than mere suppression, this fight is a process of integration, showing that the child’s instinctual energy and life force remain intact. Though the process may be chaotic and painful, it symbolizes the courage to confront fear and explore and process his emotions. The battle with the monsters represents a necessary step toward ego maturity and independence. It signifies the child’s journey to overcome excessive maternal control and to discover autonomy and creativity, a path deeply connected to the mother complex.

2. Symbol of the Shadow

Monsters symbolize our inner shadow. According to Jung, the shadow consists of instincts, desires, repressed ego, and inferior personality traits that are difficult for the conscious mind to accept. These are projected as dark gods, ghosts, demons, and monsters in mythologies and legends (Lee, 2021a). The shadow reveals our inner aspects that have been repressed by the conscious realm, provoking fear and terror, but also possessing a captivating quality.

For example, the Minotaur in Greek mythology symbolizes primal human urges and violence, while Eastern specters and ghosts represent guilt and anger. All of these figures are rooted in the collective unconscious. In modern narratives, vampires and zombies are symbolic projections of unconscious desires and fears surrounding death. Joseph Campbell explained that “archetypes from the unconscious are embodied as demonic figures in mythologies and dreams” (Campbell, 2018/1949). emphasizing the symbolic function of the shadow across various narratives.

However, the shadow is not solely negative—it also contains repressed emotions, desires, and untapped potential. In analytical psychology, confronting the shadow is a central part of the individuation process. By recognizing and accepting the shadow, individuals can achieve ego integration and psychological maturity. Monsters in mythology serve as symbolic expressions of the shadow, and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and accepting them leads to inner integration and psychological maturity. Monsters are externalized representations of the dark aspects of the human psyche. By projecting the shadow onto an external figure, individuals gain an opportunity to confront i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nster and the shadow reflects how deeply embedded fears, repressed desires, and unresolved psychological conflicts in the unconscious are expressed in symbolic form. If left unintegrated, the shadow may manifest as an external threat—but if integrated, it becomes a source of psychological growth and creativity.

The following case presents a sandpicture from sandplay therapy in which an adolescent symbolically represented his inner anxiety and repressed emotions through human-type and supernatural monsters—zombies, skeletons, ghosts, vampires, and hounds of hell.

Adolescent C (15-year-old male) was referred for therapy due to a lack of emotional expression, display of helplessness in daily life, and low motivation toward academics. The main concern in therapy was his repeated communication conflicts with his parents and his tendency to suppress emotions and avoid direct expression.

He grew up between a mother who had experienced her own father’s alcoholism and violence and a father with a strong, assertive, and direct communication style. The mother

was often emotionally anxious and tense, paying close attention to others' reactions and attempting to control her child's words and actions. The father, in contrast, was unconcerned with others' opinions and emphasized blunt, assertive expression. This clash in parenting styles created confusion for the client. As he tried to meet both parents' expectations, he frequently suppressed his own emotions and desires.



Figure 6. A Sandpicture Symbolically Representing Repressed Shadow Emotions and Anxiety in the Unconscious

The parents expected responsibility and mature behavior from him while discouraging emotional expression, which led to an environment where the adolescent felt unable to express his real needs. As a result, he internalized emotions such as anger, frustration, and defiance rather than expressing them openly. Over time, he lost confidence in making his own choices and began to experience a sense of helplessness. These repressed feelings formed shadow elements within his unconscious and were projected into his play as monstrous figures.

Halloween-themed figures such as zombies, skeletons, ghosts, vampires, and hounds of hell were placed on white sand. This sandpicture, featuring human-type monsters (zombies, skeletons, vampires) and supernatural-type monsters (ghosts, hounds of hell), symbolically expresses the shadow emotions the adolescent has been suppressing—such as fear, guilt, anger, and helplessness.

Vampires survive by sucking human blood, and blood symbolizes emotional energy and life force. According to Jungian dream interpretation, a vampire sucking blood represents a state of helplessness in which vitality, willpower, and motivation are lost (Boa, 1988/2004). This can be understood as a reflection of the adolescent's inner experience of emotional exhaustion and a loss of sense of self. Zombies and skeletons, as lifeless beings, symbolize

an uncontrolled collective unconscious or a state of emotional numbness. They reflect the adolescent's repressed inner shadow, particularly feelings of helplessness and confusion about identity. Ghosts and hounds of hell represent repressed memories, guilt, and fear deeply rooted in the unconscious. These figures can be seen as unconscious projections of emotional wounds and anxieties from past experiences that the adolescent has been unable to express directly.

Through the sandpicture, the adolescent makes the first contact with his shadow. By visualizing repressed emotions as external monster figures, he shows an unconscious attempt to face them. This is not merely a projection of fear, but a turning point toward ego integration through confrontation with the shadow.

If the shadow is not confronted and integrated, it is experienced as an external threat. But when accepted and understood, it can offer a chance for psychological growth and healing. Fear originates within and grows stronger when ignored. But when it is acknowledged and confronted, psychological peace can be achieved. Darkness and fear are not only negative—they can also act as powerful motivators for growth and protection (Seo, 2018).

The shadow forms from past experiences and repressed emotions, appearing in the unconscious in various ways such as dreams, projections, slips of the tongue, or, in severe cases, neurosis. In folktales and mythologies, stories of defeating monsters and gaining elixirs of immortality symbolize the process of facing and integrating the shadow to realize one's human nature (Neumann, 2004/2010).

The monsters that appear in the adolescent's play are not simply objects of fear. They are projections of the shadows he has denied and repressed. Confronting them is part of a psychological journey toward maturity and ego integration. The shadow is essential for maturity of the psyche, ego-integration, inner growth, and psychological healing.

Monster

We all have a monster living inside us.
Those monsters always tempt us down the wrong path.
Along the way, things get harder and harder.
The monster of regret—called the past.
The monster of worry—called the future.
But
We never lose to the monster.
Because we have the magic called the present.

This poem, written by a first-year middle school boy, describes the monsters of regret and worry as the past and the future, and expresses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m through the “magic of the present.” Like Jung’s theory of shadow integration, it symbolically represents the journey of facing and overcoming internal conflict through unconscious symbols. The “magic called the present” refers to self-realization and the journey of reconciling with and integrating the inner monster.

According to Jung’s theories, monsters are symbolic representations of the shadow—projections of repressed desires and emotions. Confronting and integrating them is not about eliminating the dark aspects of one’s inner world, but about transforming it into creative energy as part of the process of psychological maturity. According to *The Dictionary of Dream Symbols*, slaying a monster symbolizes the journey of understanding repressed desires and impulses and accepting them as part of oneself. Lee (2021b) explains that simply recognizing destructive impulses within the mind empowers individuals to stop being controlled by their shadow and to gain control over it. This awareness acts as a kind of immunity against the destructive force of the unconscious, ultimately preventing the shadow from becoming dominant.

In mythologies and folktales, monsters tested man’s instinctive desires and morality, and only those who overcame the test gained inner growth and reward. In modern society, monsters still symbolize repressed emotions, bias, and discrimination. Facing and integrating them remains a necessary process for both individual and collective healing and growth. In Korean traditional rituals and festivals, for example, *talchum* (mask dance) and shadow plays have served as ways to sublimate the shadow of misfortune and disease into celebration, offering opportunities for communal healing and emotional release. This shows that monsters are not merely objects of fear—they function as guides for inner growth and symbolic companions in the process of creative transformation. Facing the monster becomes a vital process of understanding and integrating repressed emotions, ultimately leading to self-realization and wholeness.

3. Symbol of Rite of Passage (The Guardian of the Treasure)

Monsters symbolize rites of passage and are often portrayed as symbolic beings representing the challenges and trials that one must confront in order to achieve growth and transformation. Jung(1964/2009) believed that in order to reach self-realization, it is essential for individuals to face their shadows in the unconscious and overcome them. In this context, the monster functions as a psychological barrier that must be overcome and as a guardian standing at the threshold of change and growth.

In ancient mythology and legend, monsters appear as guardians of forbidden realms and

precious treasures. In Greek mythology, the Hydra tests Heracles' strength and wisdom, while Cerberus challenges him to cross the boundary of death and claim a new identity. In Eastern mythology, the Gumiho tests one's morality and desires, and only those who overcome such trials can reach the reward. In these narratives, the monster plays a necessary role in promoting the hero's inner integration and maturity. In modern narratives, too, monsters and trials serve to foster internal growth. Chihiro in *Spirited Away* (2001), Elsa in *Frozen II* (2019), and Riley in *Inside Out* (2015) each undergo trials that lead them to establish their identity and achieve inner integration. From ancient mythology to contemporary stories, monsters have consistently served as symbols of rites of passage, guiding humans toward personal growth.

Transitions in development are inherently accompanied by fear, which arises from the energy of the collective unconscious. For something new to be born, the old ego must be sacrificed; the treasure guarded by the monster symbolizes more than material value—it represents the deep inner core of the human psyche. This transformation takes place through the death of the old ego and the birth of the new ego, with the monster functioning as a key symbol of this process.

In children's sandpictures, the dragon guarding a treasure symbolizes a trial, suggesting that only by overcoming it can one reach the true treasure. The monster is not merely an object of fear, but a symbol of the values that humans hold dear and the inner journey required to protect them. The monster guarding the treasure is often associated with the sacred and is portrayed as a guardian of holy places linked to it. Additionally, the monster appears as a symbolic figure guarding the gates of the underworld, through which the souls of the dead must pass (Neumann, 1974/2009; Lee, 2010).



Figure 7. A Sandpicture Symbolizing Rites of Passage and Inner Growth Through the Image of a Dragon as Guardian of the Treasure

In ancient mythology, the griffin guards the tree of life, the dragon protects the golden apples and the golden fleece, and serpents watch over Dionysus's goblet—each of these stories conveys symbolic truths. In Korean folktales, monsters that guard treasures symbolize supernatural powers, and to obtain these treasures, one must undergo trials and adventures that require the courage to face death (Lee, 2021b). These treasures are not merely material objects—they symbolize life, wisdom, and divine blessings, which are important values that humans deeply desire. The monster, in turn, functions as a symbolic figure that drives human transformation and growth.

The inner monsters—fear, anxiety, and guilt—test us. Only those who overcome these can reach self-realization, psychological peace, true freedom, and wisdom. The battle with the dragon is a trial in which the hero's courage and determination are tested; it is not just an external conflict but a symbolic struggle to overcome inner fear and limitation. Only those who dare to face this danger without being defeated by the dragon can attain the “hard-to-reach treasure” (Jang, 2024). Here, the treasure does not refer to a material object but symbolizes the hero's inner growth and self-overcoming, through which they evolve into a higher state of being.

The monster is not simply an enemy to be defeated, but a companion in transformation and creation that fosters inner growth. The remnants left behind after defeating the monster can be transformed into sources of passion, wisdom, and purification (Estes, 1992/2015). According to Jung's theories, the monster is a symbol that forces us to face the unknown within our inner world, and symbolically accepting it leads to self-integration and the formation of a mature ego.

The image of a hero fighting a dragon (or monster) is a symbolic representation of the battle for deliverance from primitive conflict. In the process of crossing the threshold, the hero confronts the shadow—those dark aspects of the inner world. This shadow often appears in the form of a dragon or terrifying enemy. By defeating it, the hero advances into a new world. In this journey, the hero undergoes a symbolic death and rebirth. Whether the hero is being shattered or swallowed by a whale, these symbols of death represent the hero's complete transformation (Campbell, 1949/2018). Such battles do not signify mere victory, but meaningful transformation achieved through challenge and growth.

To attain treasures such as immortality, one must face trials—posed by monsters, snakes, and thorny plants. Monsters serve as guardians of sacred spaces, protecting royal gates, temples, and tombs. Only by defeating them can one reach new insight. The monster, then, is not simply a symbol of fear but a necessary part of the rite of passage—an essential challenge for inner change and growth. The monster symbolizes a threshold for personal growth and expansion of consciousness—a passage through a boundary that leads to a new dimension of

initiation. As in Joseph Campbell’s *The Hero’s Journey*, the moment of encountering the monster is not merely a trial of overcoming fear, but a passage point where the individual moves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ego and meets oneself at a deeper level.

IV. CONCLUSION

Classifying monsters by form, region, history, culture, and literature is an effort to understand their diverse characteristics and symbolic meanings. Such classifications reflect specific cultural values, beliefs, and inner human conflicts, showing that monsters are not merely objects of fear but products of human psychology and cultural imagination. Through their dual nature—fear and fascination—monsters have repeatedly appeared in human imagination across all times and societies.

The creation of monsters is rooted in psychological, cultural, and social factors. This study analyzed the symbolism of monsters through the key concepts of analytical psychology: the mother complex, the shadow, and the rite of passage. While each of these concepts holds independent meaning, they are also closely connected to the structure of separation-initiation-return as outlined in Joseph Campbell’s *The Hero’s Journey*. Together, they reveal the integrated symbolic role that monsters play in the process of human psychological growth. (Campbell, 2003; as cited in Jang, 2024).

Table 5. Comparison of the Symbolism of Monsters with Analytical Psychology and the Structure of the Mythic Journey

Stage of Psychological Transformation	Concept in Analytical Psychology	Stage in Campbell’s Hero’s Journey	Symbolic Role of the Monster
Stage 1	Mother Complex	Separation	Dual nature of protection and oppression; psychological struggle for ego independence
Stage 2	Shadow	Initiation	Projection of repressed emotions; confrontation with the dark ego in the inner world
Stage 3	Rite of Passage	Return	Final trial for maturity and integration; functions as a gatekeeper

First, the mother complex is a concept that includes the duality attachment and fear toward the mother, as well as protection and oppression. The mother is both a life-giving, nurturing figure and a source of excessive protection and control that can hinder the development of autonomy. Monsters often appear as symbolic representations of this maternal ambiguity. They become external symbols that conflict with the internal desire to move from dependence

toward independence. This concept is clearly reflected in the sandpictures of client A and B. The volcano, and monsters such as the venomous snakes, two-headed dragon, Poseidon, and Cerberus are interpreted as symbols of emotional repression, anger, and maternal oppression. These images correspond to the “separation” stage in *The Hero’s Journey*, which represents the departure from one’s established identity and psychological comfort zone—the first step toward autonomy.

Second, the shadow is made up of emotions, instincts, impulses, and negative aspects of the ego that are difficult for the conscious to accept and therefore repressed. According to Jung, if the shadow is not integrated, it is projected outward in symbolic forms such as monsters, ghosts, or evil spirits. In the sandpicture created by client C, figures like zombies, vampires, ghosts, and skeletons reflect shadow emotions such as helplessness, guilt, and self-denial. The monster gives visible form to these repressed feelings, helping the ego confront the shadow. In particular, the vampire, which sustains itself by sucking blood, symbolizes emotional exhaustion and the loss of a sense of self. In this way, the monster functions as a psychological mediator that facilitates ego integration and the restoration of creativity. This process can be understood as the “initiation” stage—a deep descent into the unconscious to encounter the shadow—and the ego, through this trial, prepares for integration and growth.

Third, as a symbol of the rite of passage, the monster represents the final gateway the ego must cross on the journey toward self-realization. The image of the monster guarding a treasure symbolizes the trial of psychological maturity and integration, and only by passing through this challenge can one achieve the creation of a new ego. From ancient mythologies to modern animations like *Spirited Away*, *Frozen*, and *Inside Out*, monsters repeatedly appear as symbols of trials and as guardians at the threshold of self-discovery. This aligns with Campbell’s concept of the “guardian,” where the battle with the monster represents a confrontation with one’s inner shadow, the disintegration of the ego, and symbolic rebirth. This transformation corresponds to the “return” phase of the hero’s journey, in which the ego, having passed through the monster, returns with deeper self-understanding and maturity, ready to enter a new horizon of life.

These three symbolic meanings—mother complex, shadow, and rite of passage—are closely tied to the process of ego growth and transformation. As Lee (2021b) writes: “The ego is born from the unconscious, vast and deep like the ocean. It begins as something small and fragile, like an island in the sea, assimilated with various primal impulses and the world of mythic fantasy. Over time, it gradually becomes conscious of the real world and expands its territory. The ego constantly transforms as it navigates within the conflict between the external and the inner worlds. Through this process, it learns to differentiate between reality and fantasy, forming its own perspective and judgment.”

The word monster comes from the Latin *monere*, which means “to warn,” and can be understood as a symbol of warning sent from the human unconscious to the ego (Carroll, 1990; Cohen, 1996). A monster emerges at the moment when the ego is ready to enter a new psychological stage, delivering a message to integrate repressed emotions and instincts. If this warning is ignored, the monster can turn into a destructive force. However, when acknowledged and interpreted, the monster becomes a guide that leads to inner truth and ego maturity.

In conclusion, understanding the monster is not simply about overcoming fear—it is the process of confronting and accepting the essential truth that lies deep within oneself, thereby forming a broader and deeper ego. The monster promotes ego integration, personality maturity, psychological change, and growth. It serves as a companion in the psychological and healing journey that explores the depths of human existence. As a deep symbolic figure, the monster reflects psychological conflict, growth, and transformation. It becomes a key guide in the individuation process, helping one recognize and integrate the shadow and the mother complex in the unconscious.

References

- Asma, S. T. (2009). *On monsters: An unnatural history of our worst fears*. Oxford University Press.
- Boa, F. (2004). *The way of the dream*. (H-S. Park & C-I. Lee, Trans.). Hakjisa. (Original work published 1988)
- Campbell, J. (2018).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 (Y-K. Lee, Trans.). Minumsa. (Original work published 1949)
- Campbell, J. (2020). *The Hero's Journey: Joseph Campbell on his life and work* (J-S. Park, Trans.). Galapagos. (Original work published 2003)
- Carroll, N. (1990). *The philosophy of horror: or, paradoxes of the heart*. Routledge.
- Cohen, J. J. (1996). *Monster theory: Reading cultur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de Vries, A. & de Vries, A. (2024). *Elsevier's dictionary of symbols and imagery* (M-K. Jang, M-R. Kwon, S-M. Kim, & H-S. Jung, Trans.). Hakjisa. (Original work published 1974)
- Estes, C. P. (2015). *Women who run with the wolves* (Y-M. Son, Trans.). Iru. (Original work published 1992)
- Gilmore, D. D. (2003). *Monsters: Evil beings, mythical beasts, and all manner of imaginary terror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Hillman, J. (1979). *The dream and the underworld*. Harper & Row.
- Jang, M-K. (2024). *Analytical psychological sandplay therapy* (2nd ed.). Hakjisa.
- Jang, Y-R. (2015). The archetypal 'feminine' and the symbols and images of the great mother. *Semiotic inquiry*, 44, 227-254.

- Jung, C. G. (2002). *Archetyp und archetyp und unbewusstes* (Jung Institute of Korea, Trans.). SolBook. (Original work published 1984)
- Jung, C. G. (2009). *Man and his symbols*. (Y-k. Lee, Trans.). Yeollinchaekdeul. (Original work published 1964)
- Jung, C. G. (2016). *Aion : Untersuchungen zur symbolgeschichte* (S-Y. Kim, & M-J. Jung, Trans.). Bookle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50)
- Jung, C. G. (2021). *Heros and mutterrarchetyp* (Jung Institute of Korea, Trans.). SolBook. (Original work published 1985)
- Jung, C. G. (2002). *Archetyp und archetyp und unbewusstes* (Jung Institute of Korea, Trans.). SolBook. (Original work published 1984)
- Kerenyi, K. (1951). *The gods of the greeks*. Thames and Hudson.
- Kim, C-R. (2023). Understanding disney's movie frozen through jung's integration and individuation with focus on the red book. *Yonsei Journal of Counseling and Coaching*, 15, 9-28.
- Kim, S-H. (2021). Drifting female monsters: Representations and meanings of female monsters in taewonji. *The Society for Korean Literary History*, 77, 14-30.
- Lee, B-Y. (2021a). *Shadow* (2nd ed.). Hangilsa.
- Lee, B-Y. (2021b). *Self and self-actualization* (2nd ed.). Hangilsa.
- Lee, J-H. (2018). The unconscious meaning of zombies in train to busan and seoul station: Focused on freud and klein. *The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analysis*, 20(1), 63-88.
- Lee, K-E. (2024). A study on characterizing natural characters in animation: focusing on the imagination of 'water' in <elemental> . *The Korean Journal of Animation*, 20(2), 210-235.
- Lee, K-J. (2010). The interpretation of german fairy tale "three dogs" from the aspect of analytical psychology. *Sim-seong Yeon-gu*, 25(2), 194-223.
- Liu, B. (2020). *Encyclopedia of world monsters* (J-H, Lee, Trans.). Modern Intelligence. (Original work published 2018)
- Neumann, E. (2009). *Die grosse mutter* (S-H. Park, Trans.). Sallim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74)
- Neumann, E. (2010). *Ursprungsgeschichte des bewusstseins* (Y-K. Lee, Trans.). Analytical Psychology Center. (Original work published 2004)
- Seo, C-S. (2018). *Understanding children's minds through picture books*. Changbi.
- Shelley, M. (2020). *Frankenstein: or, the modern prometheus* (N-K. Lee, Trans.). Arte. (Original work published 1818)
- von Franz, M. L. (2021). *(Der)Schatten und das böse im märchen* (B-Y. Lee, & K-J. Lee, Trans.). Jung Institute of Korea. (Original work published 1974)
- Won, H-J. (2017). A study on the great mother goddess in pan's labyrinth.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18(4), 209-212.

Received :January 31, 2025

Revised : March 07, 2025

Accepted : March 22, 2025